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15호 2026년 04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영화동), 3층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비전 : 지역 잇고, 가족 품는 온정 (모든 것, 溫, ON) 플랫폼

핵심가치 : RE

든 영역에 사
력을 세워 나
어 나기
함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사업, '맞춤형 정착 서비스 제공해요'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3월 9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결혼이민자 멘토 위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한국 생활에 먼저 정착한 선배 결혼이민자들이 멘토가 되어 후배 결혼이민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하는 신호탄이었다. (관련 기사, 10면) 송하성 기자

진단비 올리고 사망위로금 신설 '경기 기후보험'...외국인주민도 보장받아요

경기도가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어요.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보장 금액은 올리고, 신규 보장 항목도 추가했어요. 먼저 지난해 10만 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 원으로 50% 인상됐으며,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올랐어요.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렵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이 신설됐어요.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

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한층 강화됐어요.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추가됐어요. 이로써 총 22만 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기준을 적용받고 각종 추가 지원금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돼요.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요. 나아가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어요.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

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하며,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에요.

올해 기후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어요. 사업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이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京畿道启动了“2026年气候保险”，大幅强化保障内容，包括将诊断补贴最高提高至原来的两倍，并新设身故慰问金。今年京畿气候保险为直接减轻道民医疗费用负担，提高了保障金额，还新增了保障项目。首先，去年温热病和

寒冷疾病的诊断费为10万韩元，今年为15万韩元，上调了50%，传染病诊断费也从10万韩元翻倍至20万韩元。

为更全面保障突发的严重气候损害，还新增了300万韩元的身故慰问金以及10万韩元的急诊就诊补贴。在高温、暴雨、暴雪等气象预警发布期间发生的事故，只要达到一定伤害诊断标准，仍可像以往一样获得气候灾害事故慰问金。

对最先受到气候变化冲击的弱势群体的支援也进一步加强了。此前，仅向上门健康管理项目对象提供温热·寒冷疾病的住院费、门诊费用等支援，而今年起支援对象新增了约7万名孕妇。因此，共有22万名气候弱势群体将适用放宽后的事故慰问金诊断标准，并通过各种追加支援金得到更全面的保障。

〈중략, 베트남어 25면, 태국어 25면, 영어 13면〉 파파야스토리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9 오산 10~11 구리 12~13 평택 14~17 양평 18 광주 19~21 이천 22~23 광명 24~27 성남 28~30 과천 31 김포 32~36

중국어 中文 19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6, 25, 33 러시아어 Русский 5, 21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6, 25, 33 영어(English) 5, 13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中文, 베트남어 Tiếng Việt, 러시아어 Русский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영어 English,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합니다〉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12, 19, 22, 36 나의 학습 My Study 3, 12, 14, 16, 18, 20, 23, 26, 29, 32 보건 Health 15, 17 이주배경청소년 7 외국인근로자 34 도서관 Library 9 교육 Education 35 국제교류 2 복지 Welfare 5, 19, 28, 33 주거 Residence 2 인터뷰 Interview 11 기후보험 1, 13, 25 유학생 Foreign Student 4, 6, 21 반려견 7, 35 관광 Tourism 9 취업지원 21, 27

공공임대 분양전환,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상원 경기도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자부터 보증료까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상원 의원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대출을 앞선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

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명시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소중한 주거 상향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금리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 1,420만 도민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진정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전자영 의원, 소방 교육환경 개선이 도민 안전 시작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4일(화)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과 함께 경기소방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생 휴게공간 조성 및 교직원 생활관 개선 등 복지 향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경현 의원은 소방 인재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각별히 강조해왔다.

현재 경기소방학교는 노후된 생활관의 외벽, 창호, 난방 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더불어, 교육생들이 체육·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휴게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교육생들의 휴식 여건과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교육생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AI시대 한국 교육정책 방향 배워요”...몽골 교사 및 학생 80명 한국 포럼에 참여



몽골 청소년 및 교육자를 위한 한국어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주)뉴엠메디 주관으로 진행됐다.

‘AI 새로운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 포럼 참가를 위해 내한한 방문단은 몽골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교사 60명과 학생 20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포럼에 앞서 파주시립한울사랑어린이집, 꿈초롱어린이집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교육현장을 살펴봤다. 몽골 유치원 교사들은 미술심리상담

교육을 접하고 몽골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뉴엠메디는 50시간의 온라인 수업과 20시간의 실습 교육을 무료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나랑게렐 첸겔바야르 몽골 돈트아이막 유치원 교사는 “한국 어린이들이 몽골 유치원 교사들을 위하여 환영식과 공연으로 반갑게 맞아주어서 감동했다”며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울란바트로 23번 학교와 18번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심학고등학교(김현제 교장)에 방문해 교육 방식과 급식을 체험하기도 했다.

한편, ‘AI 새로운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 포럼에 참여한 울란바트로 23번학교 간툴가 바토치르 교사는 “포럼을 통해 한국의 교육정책 방향과 시스템에 대하여 알게 됐다”며 “몽골에 돌아가서 바로 학교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후 방문단은 파주 헤이리마을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경복궁, 한국잡월드, 청계천, 운정스

타필드(별마당도서관),서울대학교 등을 방문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윤희 교수(㈜뉴엠메디 몽골지사장)는 “이번 행사가 더 다양화, 체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몽골 주재 한국관광공사(KTO)와 경기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문화와 교육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은 방문단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몽골의 토군투무르 쿠슬렌-우진 원장은 “몽골이 AI 시대에 발맞추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몽골 교사들과 청소년들의 방문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관광공사(KTO)와 경기관광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5~7월에도 계속 될 방문 프로그램에 접수 및 상담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나의 권리 지키고 안정적으로 생활해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생활법령교육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3월 24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제 교육을 진행했다. 법제처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가 성공적인 한국생활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법적 지식을 배웠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한민국의 기본 법 체계, 생활 법령, 이민·귀화 등 출입국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에서 권리를 보호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여자들이 체류 자격, 국적 취득, 생활법 관련 궁금증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기회가 주어졌다. 한 참여자는 “궁금했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지식을 이해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또한 참여자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꿈찾GO! 잡월드 직업체험’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월 11일 진로설계지원사업 ‘꿈찾GO! 잡월드 직업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총 31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센터 내에서 직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한국잡월드에서 ‘미래 직업관’ 프로그램 1회기와 ‘청소년 체험관’ 프로그램 2회기가 실시됐다. ‘미래 직업관’은 미래형 직업 체험관으로 인공지능·에너지·환경 등 사회 변화와 미래 산업을 반영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간이다. 청소년들은 실제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한 미션 수행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직업 세계의 변화와 미래 직업을 체험했다.

‘청소년 체험관’은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체험관 중에서 참여자가 사전에 직접 직업을 선택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사전에 선택한 후 해당 직업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주도적인 진로 탐색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참여 아동들은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 있는 직무를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지은 기자

수원화성박물관, ‘해설과 함께

하는 수원화성 답사’ 운영해요

수원화성박물관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해설과 함께하는 수원화성 답사’ 프로그램을 5월까지 운영한다.

수원화성의 역사와 자연생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답사형 교육이다. 이론 강의와 현장 탐방을 연계해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프로그램은 총 6회에 걸쳐 수원화성 박물관 사회교육실과 수원화성 일대에서 진행된다.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당 40명을 모집한다.

답사는 환경·생태 전공 강사와 함께 도심 속 자연환경을 관찰하는 ‘도시 자연생태 체험형 답사(2회)’와 역사 전공 강사와 함께 수원화성 주요 유적지를 탐방하는 ‘수원화성 역사문화 답사(4회)’로 운영된다.

전화(031-5191-4216)로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모집이다. 도시 자연생태 체험형 답사 비용은 1000원, 수원화성 역사문화 답사는 무료다.

이지은 기자

2026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기타 - 매주 월~금 버리스타 취업기초 소양교육(글로벌명령생학습관)	한국어&이중언어 - 월,수,금 10:00(강의실1,4,5,6) - 월,수,금 13:00(강의실1,4,5,6,대 강의실) - 이중언어교육지원 - 월,목 15:50~17:20(강의실5)	기초학습 - 학습교실 - 월,수,금 16:00 유아반(강의실3) - 월,목 16:00 초등반(강의실3,4) - 찾아가는 학습교실 - 월~금 09:30 찾아가는 학습교실 (강아미아이집요 9개기관)	1 -16:00 수원월드컵경기장축구교실 (월드컵경기장)	2	3	4
5 -10:00 이중언어교육지원(전체강 의실) -10:00 이중언어 부모코칭(강의실 5)	6 -10:30 월례회의(대강의실)	7 -10:00 우물물래 동아리(대강의 실) -13:30 사진 동아리(대강의실)	8 -16:00 수원월드컵경기장축구교실 (월드컵경기장)	9 -13:00 요리 동아리(장안구민회관) -13:00 총 동아리(전댄스스튜디오)	10	11 -10:00 잡월드 체험(대강의실,잡월 드)
12 -10:00 이중언어교육지원(전체강 의실)	13	14	15 -16:00 수원월드컵경기장축구교실 (월드컵경기장)	16	17	18 -11:00 다함께 움직이는 환경보전 교실(수원환경성질환경아토포센터)
19 -10:00 이중언어교육지원(전체강 의실) -10:00 이중언어 부모코칭(강의실 5)	20	21 -10:00 우물물래 동아리(대강의 실) -13:30 사진 동아리(대강의실)	22 -16:00 수원월드컵경기장축구교실 (월드컵경기장)	23 -13:00 총 동아리(전댄스스튜디오)	24	25 -10:00 다함께 움직이는 환경보전 교실(수원환경성질환경아토포센터)
26 -10:00 이중언어교육지원(전체강 의실)	27	28	29 -16:00 수원월드컵경기장축구교실 (월드컵경기장)	30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031-257-8504

이주민 의료 접근성 강화

수원외복과 수원나누리병원, 업무협약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4월 14일 수원나누리병원(원장 남신우)과 의료취약계층 이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원 지역에서 친숙한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은 수원나누리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이 적시에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주민들은 언어와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병원 접근이 제한되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치료 시

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이주민 대상 의료상담 및 진료 연계 ▲건강 검진 및 치료 지원 ▲통·번역 등 의료 이용 편의 지원 ▲건강 정보 제공 및 예방교육 ▲의료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해규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 접근이 어려웠던 이주민들이 보다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센터에서도 통역과 안내 등 이주민 편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나누리병원 측 관계자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써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직업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수원외복, 4개 기관과 순차적 MOU 진행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교육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월 15일 현대중장비학원 ▲3월 25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4월 9일 버드내장애인활동지원센터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5월 7일에는 요양보

호사 양성을 위해 에이플러스요양보호사 교육원과도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센터는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형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협약에 따라 교육기관들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추천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론, 실습, 실기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외국인 교육생의 직무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유학생에게 필요한 나눔 활동!

수원외복, 유학생 대상 센터 홍보 및 나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아주대학교와 동남보건대학교 등 수원 지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센터 소개 및 후원물품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센터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3월 23일에는 동남보건대학교 어학당 학생 106여 명을 대상으로 센터 소개 및 후원물품 나눔이 이루어졌으며, 3월 31일에는 아주대학교 학부 및 어학원, 교환학생 420여 명, 4월 9일에는 동남보건대학교 학부학생 38여 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3월 31일 아주대학교에

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연계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 등록 절차와 동시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유학생들이 행정 절차와 센터 정보를 한 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26년 새롭게 운영되는 ‘유학생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수요조사를 병행하여, 유학생들의 실제 필요와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양해규 센터장은 “유학생들이 낮은 환경에서 겪는 초기 어려움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상담, 교육,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사 모집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일상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취업 가능



모집기간 및 인원

2026년 4월 8일(수) 오후 1시 ~ 선착순 마감 / 9명

교육일시

이론교육 5. 18(월)~5. 22(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실습교육 10시간 (일정 추후 논의)

지원자격

- 경기 남부권 거주 성인 등록(비자: F2, F4, F5, F6, H1, H2) 이주민
- 센터에서 진행하는 바리스타, 지게차운전기능사, 정리수납, 요양보호사 중복신청 불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센터홈페이지 교육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 센터 방문 서류작성(담당자와 방문 일정 논의)

교육비 및 교육문의

5만원(실습비 별도) / 070-4440-0924

100,000 to 600,000 Won in ‘High Oil Price Damage Relief Funds’ to be Provided to 70% of the Entire Population 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implement a three-part project package to alleviate the burden of high oil prices for citizens struggling with the high oil rates and inflation caused by the Middle East war. Shall we take a look at the details?

High oil price relief funds for the working class

The relief funds for high oil prices provide greater support the further you go into the provinces and the more vulnerable the group. The plan is to provide 100,000 to 600,000 won per person to the bottom 70% of the population by income.

Specifically, depending on the region of residence, 100,000 won will be provided for the metropolitan area, 150,000 won for non-metropolitan areas, 200,000 won for 49 priority areas for population decline, and 250,000 won for 40 special areas for population decline.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32.56 million people will benefit.

In addition, 450,000 won will be provided to approximately 360,000 single-parent families and those in the near-poverty bracket; among them, an additional 50,000 won per person will be provided to residents in non-metropolitan areas, areas designated for preferential treatment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special regions.

Furthermore, among the 2.85 million basic livelihood recipients,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 will receive 550,000 won, while residents of non-metropolitan areas, areas designated for preferential treatment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special regions will receive an additional 50,000 won, for a total support of 600,000 won.

For foreigners, payments will be made only to marriage immigrants

and permanent residents.

Meanwhile, to revitalize local commercial districts, the eligible merchants for this subsidy, which is distributed in the form of local currency, have been set to be the same as local currency affiliated stores.

Distributions will be carried out sequentially in two phases. Specific details regarding eligibility and timing will be announced separately after being finalized through discussions by the relevant task force.

There is another policy being implemented for all citizens. The government plans to encourage the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nd reduce transportation costs by temporarily increasing the K-Pass refund rate to 30% to alleviate fuel and transportation expenses for the public. In addition, an additional 50,000 won will be provided to low-

income households using kerosene or LPG, where the financial burden is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beneficiaries include the elderly, disabled, infants and toddlers, pregnant women, single parents, and multi-child families among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support. If the average increase of 147,000 won announced in the winter measures last December is included, the total amounts to approximately 200,000 won.

Furthermore, it has been decided to provide 54.6 billion won in temporary fuel price-linked subsidies to 54,000 facility farms and 29,000 fishermen struggling due to high fuel prices.

We hope the government expands support, such as relief funds for high oil prices, to all foreign residents, as they are also suffering due to the Middle East war. <한글 기사 28면>

70% населения получат «компенсацию за ущерб от высоких цен на топливо» в размере 100 000–600 000 вон 한국 정부, 지역 별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шило реализовать пакет из трёх мер по снижению нагрузки из-за высоких цен на топливо и инфляции, вызванных войной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чтобы помочь гражданам, испытывающим трудности. Давайте рассмотрим подробнее. <한글 기사 28면>

Поддержка для населения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Размер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высокие цены на топлив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по мере удаления от столицы и для более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Планируется выплатить от 100 000 до 600 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для 70% населения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да. В частности, по регионам: 100 000 вон для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150 000 вон — для нестоличных регионов, 200 000 вон — для 49 регионов с поощрением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населения, и 250 000 вон

— для 40 регионов с особым статусом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населени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коло 32,56 млн человек получат помощь.

Кроме того, примерно 360 000 человек из неполных семей и группы с доходом ниже среднего получат 450 000 вон, при этом в нестоличных и специальных регионах будет добавлено ещё 50 000 вон на человека.

Также из 2,85 млн получателей базов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жители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получат 550 000 вон, а проживающие в нестоличных и специальных регионах — дополнительно 50 000 вон, итого 600 000 вон. Иностранцам выплаты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только брачным мигрантам и обладателям ПМЖ. Тем временем, эта помощь будет выдаваться в форме местной валюты, а её использова-

ние будет ограничено теми же мерами, что и у локальных платежных средств,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местный бизнес. Выплаты буду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поэтапно — в 1-й и 2-й очереди. Конкретные категории получателей и сроки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после обсуждения рабочей группо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едомств и объявлены отдельно.

Есть и другие меры,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иеся на всё насе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временно увеличить процент возврата по K-Pass до 30%, чтобы стимулировать использ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и снизить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граждан.

Также для домохозяйств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использующих керосин и LPG,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а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в размере 50 000 вон. Целевые группы —

получатели базовой помощи: пожилые, люди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младенцы,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неполные и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С учётом повышения, объявленного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зимних мер (в среднем +147 000 вон), общая сумма поддержки составит около 200 000 вон.

Кроме того, для 54 000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хозяйств и 29 000 рыбаков, испытывающих трудности из-за высоких цен на топливо, будет временно выделено 54,6 млрд вон в виде субсидий, привязанных к ценам на топли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деется расширить поддержку, включая компенсации за высокие цены на топливо, на всех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е, поскольку они такж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из-за ситуаци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Bộ Tư pháp Hàn Quốc chỉ định 16 trường cao đẳng với “khoa kỹ thuật trọng điểm đào tạo”... mỗi năm cung cấp tối đa 800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ương trình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nhằm giúp du học sinh nước ngoài trở thành nguồn nhân lực chủ chốt trong ngành sản xuất tại địa phương đã chính thức được triển khai.

Ngày 26 tháng 3 vừa qua, Bộ Tư pháp Hàn Quốc (Bộ trưởng Jeong Seong-ho) đã tổ chức lễ trao bằng hiệu và giấy chứng nhận cho 16 trường cao đẳng được chỉ định triển khai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nhằm dẫn dắt tương lai của ngành công nghiệp địa phương, tại hội trường lớn của khu phức hợp Chính phủ ở Gwacheon.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là các ngành học tại trường cao đẳng do Bộ Tư pháp chỉ định, nhằm đào tạo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du học sinh có trình độ kỹ năng ở mức trung cấp (về ngôn ngữ, học vấn và kỹ thuật) phù hợp với nhu cầu của ngành công nghiệp địa phương. Tham dự sự kiện có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Jeong Seong-ho cùng hiệu trưởng và đại diện của 16 trường cao đẳng sau lễ trao bằng hiệu, đã diễn ra buổi tọa đàm nhằm thảo luận các phương án giúp chính sách được triển khai

thành công.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K-CORE, E-7-M) là chương trình nhằm đào tạo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du học sinh có cả năng lực tiếng Hàn và kỹ năng chuyên môn, để họ có thể trở thành lực lượng lao động nòng cốt tại các cơ sở sản xuất ở địa phương.

Người nước ngoài đáp ứng yêu cầu tiếng Hàn (TOPIK cấp 3) khi nhập học vào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sẽ được miễn điều kiện tài chính khi xin visa du học, đồng thời thời gian làm thêm cũng được tăng từ 30 giờ lên 35 giờ mỗi tuần, mang lại nhiều lợi ích hơn. Ngoài ra, sau khi tốt nghiệp, khi làm việc tại doanh nghiệp liên quan đến chuyên ngành, có thể được cấp visa lao động (E-7-M), và trong tương lai cũng sẽ được ưu tiên khi xin visa cư trú (F-2).

“Khoa kỹ thuật chuyên sâu định hướng đào tạo” đã chính thức bắt đầu khóa học đầu tiên từ tháng 3. Trong dự án lần này, 6 trường ở khu vực 수도권 (vùng thủ đô) và 10 trường ở địa phương đã được lựa chọn một cách cân đối, được kỳ vọng sẽ giúp giảm bớt tình trạng thiếu hụt lao động nghiêm trọng tại các doanh nghiệp sản

xuất địa phương. Bộ Tư pháp kỳ vọng thông qua dự án này sẽ cung cấp tối đa 800 lao động kỹ thuật nước ngoài có tay nghề mỗi năm cho các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tại địa phương.

Người nước ngoài muốn nhập học vào trường này hãy kiểm tra ngành học mong muốn của mình, sau đó liên hệ trực tiếp với trường qua điện thoại để được tư vấn.

Trong bài phát biểu tại sự kiện,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Jeong Seong-ho nhấn mạnh: “Giờ đây, chúng ta cần chuyển từ cách thức trực tiếp đưa lao động thiếu hụt từ nước ngoài sang việc xây dựng một cơ chế tuần hoàn tích cực, trong đó những nhân tài ưu tú được đào tạo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trong nước sẽ được giữ lại và định cư tại địa phương.”

Ông tiếp tục bày tỏ mong muốn rằng “các trường cao đẳng sẽ trở thành cái nôi đào tạo nguồn nhân lực nòng cốt, giữ vai trò trụ cột tại các cơ sở sản xuất”, đồng thời cho biết “chính phủ cũng sẽ tích cực hỗ trợ sự phát triển của các trường và thúc đẩy sức sống của nền kinh tế dân sinh thông qua việc cải thiện các chế độ visa du học và lao động.”

파파야스토리

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ที่มีทักษะทั้งทาง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ด้านเทคนิค, จะตั้งถิ่นฐานในเกาหลีได้ง่ายขึ้น

“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ที่มีเป้าหมายในการส่งเสริม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ให้ตั้งถิ่นฐานและเป็นการส่งเสริมขอ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การผลิตในระดับภูมิภาค ได้เริ่มดำเนินการ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แล้ว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รัฐมนตรีจอง ชองโฮ) ได้จัดพิธีมอบป้ายและใบประกาศแต่งตั้งให้แก่วิทยาลัยอาชีวศึกษา 16 แห่งที่ได้รับคัดเลือกเป็น “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ซึ่งจะเป็นผู้นำอนาคตขอ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ในภูมิภาค โดยพิธีจัดขึ้นเมื่อวันที่ 26 มีนาคม ณ ห้องประชุมใหญ่ของอาคารราชการเมืองกวาซอน

“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หมายถึง สาขาวิชาของวิทยาลัยอาชีวศึกษาที่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ำหนดขึ้น เพื่อพัฒนานักศึกษา ต่างชาติอย่างเป็นระบบ ให้มีทักษะในระดับกลาง (ทั้งด้านภาษา, วิชาการ, และทักษะวิชาชีพ) ที่สอดคล้องกับ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 อุตสาหกรรมในภูมิภาค

ในงานครั้งนี้ มี จอง ชองโฮ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รวมถึงอธิการบดีและผู้เกี่ยวข้องจากวิทยาลัยอาชีวศึกษา 16 แห่งเข้าร่วม โดยหลังจากพิธีมอบป้ายแล้ว ได้มีการจัดประชุมหารือเพื่อแลกเปลี่ยนแนวทางการผลักดันให้โครงการนี้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ไปได้อย่างประสบ ความสำเร็จ และตั้งหลักได้อย่างมั่นคง

“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K-CORE, E-7-M) เป็นระบบที่มีเป้าหมายเพื่อพัฒนา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อย่างเป็นระบบ ให้มีทั้ง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ทักษะวิชาชีพเฉพาะทาง พร้อมส่งเสริมให้สามารถตั้งถิ่นฐาน และเป็นกำลังสำคัญ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ผลิตระดับภูมิภาคได้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คุณสมบัติ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TOPIK ระดับ 3) หากเข้าศึกษาใน “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นี้ จะได้รับ การยกเว้นเงื่อนไขด้านการเงินที่จำเป็นสำหรับการออกวีซ่านักเรียน อีกทั้งยังสามารถทำงานพาร์ทไทม์ได้เพิ่มขึ้นจากเดิม 30 ชั่วโมงเป็น

35 ชั่วโมง ทำให้มีความได้เปรียบมากขึ้น นอกจากนี้ หลัง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 ยังสามารถขอวีซ่าทำงาน (E-7-M) เมื่อเข้าทำงานในบริษัทที่ เกี่ยวข้องกับสาขาที่เรียนได้ และในอนาคตเมื่อยื่นขอวีซ่าพำนัก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 (F-2) ก็จะได้รับพิจารณาเป็นพิเศษอีกด้วย

“สาขาเทคโนโลยีเฉพาะทางเพื่อการพัฒนา” ได้เริ่มเปิดการเรียนการสอนครั้งแรกแล้วตั้งแต่เดือนมีนาคมที่ผ่านมา ในโครงการนี้ มีการคัดเลือก สถาบันอย่างเท่าเทียมกัน โดยแบ่งเป็น 6 แห่ง ใน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และ 10 แห่ง ในต่างจังหวัด ซึ่งคาดว่าจะช่วยบรรเทา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 แรงงาน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การผลิตใน

ภูมิภาคที่กำลังทวีความรุนแรงขึ้นได้ ทั้ง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คาดหวังว่าโครงการดังกล่าวจะสามารถ จัดหาบุคลากรช่างเทคนิคต่างชาติที่มีทักษะได้สูงสุดถึง 800 คนต่อปี เพื่อเข้าสู่ภาคธุรกิจขนาดกลางและขนาดย่อมในภูมิภาค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การสมัครเข้าเรียนในสถาบันเหล่านี้ 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สาขาวิชาที่ต้องการก่อน จากนั้นให้ติดต่อสอบถามไปยังสถาบัน โดยตรงทางโทรศัพท์ จอง ชองโฮ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ได้กล่าวในคำกล่าวต้อนรับในวันนั้นว่า “ขณะนี้เราจำเป็นต้องก้าวออกจากรูปแบบเดิมที่นำเข้า แรงงาน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โดยตรง และมุ่งสู่การสร้างโครงสร้างหมุนเวียนเชิงบวก โดยการพัฒนาบุคลากรที่มีคุณภาพจา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 ของเราเอง และส่งเสริมให้พวกเขาตั้งถิ่นฐานในภูมิภาค”

เขายังกล่าวต่อว่า “วิทยาลัยอาชีวศึกษาจะเป็นแหล่งบ่มเพาะสำคัญในการผลิตบุคลากรหลักที่เป็นกำลังสำคัญของ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ร้อมทั้งย้ำว่า “รัฐบาลจะสนับสนุนอย่างเต็มที่ ผ่านการ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วีซ่านักเรียนและวีซ่าทำงาน เพื่อส่งเสริมการเติบโตของสถาบันการศึกษาและกระตุ้นเศรษฐกิจฐานรากอย่างแข็งแกร่ง”

파파야스토리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민)는 지난 4월 15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를 방문해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권 주요 대학의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진로·진학 정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 20여 명은 서울대학교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서울대 재학생들과의 멘토링에 참여했다. 인근 캠퍼스 차량 투어(송실대·중앙대)도 실시했다.

재학생과 멘토링에서는 ▲대학생의 일상, 대학 생활 소개 ▲캠퍼스 경험 공유 ▲대학 적응 경험 ▲진

로 방향 설정 과정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대학 생활을 공유했다.

한 청소년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보니 대학 생활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며 “재학생 멘토의 설명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했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윤영민 센터장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대학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의 성장과 진로 설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수원특례시, 춘계 광견병 예방 접종 지원 사업 26일까지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4월 26일까지 ‘2026년 춘계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등록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 후 1년이 지난 경우 접종할 수 있다.

선착순 3750두에 한해 지정 동물병원 69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수원시가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반려견 소유주는 접종비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상담·추가 진료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방문 전 전화로 백신 잔여량을 확인해야 한다. 동물등록이 되지 않는 반려견은 등록 후 접종할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려동물과 시민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수원우체국, 팔달산 회주도로에 ‘느린우체통’ 운영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오늘의 이야기를 3개월 후에 특별한 추억으로 전해주는 ‘느린우체통’을 운영한다. 수원시와 수원우체국은 4월 6일 팔달산 회주도로 내 남포루 앞에서 ‘느린우체통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느린우체통 설치 및 장소 제공 ▲서신 수집·배달 ▲수원 방문의 해 기념 맞춤형 엽서 제작·판매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느린우체통’은 케이(K)-드라마 촬영지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수원시 대표 벚꽃 명소인 팔달산 회주도로 내 남포루 앞 드라마 포토존 조성지에 설치된다.

관광객이 엽서를 작성해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이 서신을 수집한 뒤 3개월 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느린우체통이 벚꽃 시즌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복고풍 감성의 포토존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선은임 수원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박현덕 수원우체국 영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느린우체통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설렘을 선사할 것”이라며 “여행지에서 보낸 편지가 다시 수원을 찾게 만드는 따뜻한 초대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새빛배움’ 구축

수원시, 6월 정식 오픈...정보 검색, 결제까지 한 번에



수원특례시가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새빛배움’을 구축했다. 6월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경기도와 협력해 구축한 ‘새빛배움’은 경기도 온라인 학습 플랫폼(GSEEK)과 연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원시 특화 평생학습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지난 3월 25일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 수원시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강좌 신청·결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 이뤄진다. 새빛배움은 ▲강좌 검색·신청·결제 원스톱서비

스 ▲13개 분야 1800여 개 온라인 콘텐츠·수원시 오프라인 콘텐츠 실시간 화상학습 ▲학습지원센터(콜센터) ▲학습동아리 ▲강사은행 ▲시설예약 ▲실시간 통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플랫폼 이름 ‘새빛배움’은 시민 선호도 투표로 선정했다. 3월 10~24일 진행된 투표에 2315명이 참여했고, 57%(1329명)가 새빛배움을 택했다.

수원시는 4~5월 44개 동 평생학습센터 플랫폼과 새빛배움을 연계하고, 담당자 교육, 대시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6월 중 통합플랫폼을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새빛배움에 관내 100여 개 평생학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배움 구축으로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해 평생학습 도시로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SUWON SPECIAL CITY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2026-2027

새빛 글로벌 프렌즈 모집

모집기간 2026. 4. 13.(월) ~ 5. 22(금)

※ 모집상황에 따라 상시접수

모집인원 000명



지원자격 한국어 및 모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주민 누구나**

지원방법 새빛톡톡, 네이버 폼, 이메일 접수(cindy1524@korea.kr)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활동기간 선발일 ~ 2027. 12. 31. (선발결과 개별 문자 안내)

활동내용 (글로벌 가이드) 외국인관광객 대상 맞춤형 가이드 활동
(글로벌 크리에이터) SNS 활용 관광 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
(관광 모니터링단) 외국인관광객 맞춤형 개선사항 모니터링 등

활동혜택 자원봉사시간 부여, 활동증명서 발급, 우수활동자 표창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 필수)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 ☎ 031-5191-2693

'2026-2027 수원 관광의 해'를 맞아
수원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새빛 글로벌 프렌즈」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이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빛톡톡



네이버폼



신청서 다운로드

‘새빛 글로벌 프렌즈’ 5월 22일까지 모집

수원시, ‘수원 방문의 해’ 맞아 이주민 100명 내외 선발해요



수원특례시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맞아 5월 22일까지 수원시를 전 세계에 알릴 ‘새빛 글로벌 프렌즈’를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 4월 2일 열린 수원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시민추진단 발대식>

모집 대상은 한국어와 모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주민이다. 10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안내와 관광 홍보 활동을 하며 수원의 글로벌 이미지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주민은 4월 13일부터 5월 22일

까지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네이버 폼 또는 전자우편(cindy1524@kore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한다.

새빛 글로벌 프렌즈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활동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가이드 활동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홍보 ▲외국인 관광객 관점의 개선 사항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되고 활동증명서를 발급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수원시장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주민이 참여해 수원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며 “새빛 글로벌 프렌즈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친근하고, 만족도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031-5191-2693

수원시는 지역사회 외국인주민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도서관, 도서관주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해

수원시도서관이 제62회 도서관주간(4월 12~18일)을 맞아 ‘도서관 속 작은 펼침, 세상을 여는 큰 열림’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개 도서관에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3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트 인사이드(창릉·광교홍재도서관, 4월 9~17일)’, ‘사계-봄 축제(호매실도서관, 4월 18일)’ 등 6개의 공연·축제가 열린다. ‘이진아 작가와의 만남(호매실도서관, 4월 15일)’, ‘예소연 작가와의 만남(선경도서관, 4월 16일)’ 등 12개의 저자 초청 강연도 열린다.

‘어떤 고양이도 보이니(버드내도서관, 4월 12일)’, ‘전략과 순발력의 그림책 놀이터(태장마루도서관, 4월 18일)’ 등 독서문화 강의·체험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수원시도서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도서관별 프로그램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수원 방문의 해’ 발판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한다...추진상황 보고회



수원특례시가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발판으로 ‘글로벌 관광도시’를 향해 나아간다.

수원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수원 방문의 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40개 부서에서 7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홍보 ▲수용태세 ▲행사 ▲콘텐츠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업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홍보 분야는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깃 마케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스엔에스(SNS), 관광플랫폼, 미디어 협업을 활용한 도시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집중한다.

수용태세 분야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교통·환경·안내 체계 등 관광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행사 분야는 계절별·야간·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행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은 강화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기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확대한다. 수원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수원 방문의 해는 모든 부서가 협업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프로젝트”

라며 “유기적인 협업으로 수원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2026년),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30주년(2027년)을 맞아 수원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슬로건은 ‘수원, 당신을 위한 관광도시(Suwon For You)’다.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어 등 6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수원시청 1899-3300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031-247-1324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1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070-7523-3686 수원교육지원청 031-250-1335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95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31-7864 범죄신고 112 수원서부경찰서 031-8012-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3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2026년 한국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원 대상을 기존 결혼이민자에서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배움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이 참석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교육생들의 출발을 격려하고 배움의 열기를 응원했다.

이권재 시장은 “새로운 공간에서 오산시가족센터가 새롭게 출발하고 결혼이민자 여러분의 한국어 교육 개강식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낮선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의지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응원한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격려했다.

이병희 센터장은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되어 더 다양한 이웃과 함께하게 된 만큼 그 책임감이 크다”며, “한국어교육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소통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가족센터는 개강식 이후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체계적인 교

육 과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외국인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움의 열정, 노래에 신다

이날 행사에는 센터의 대표 자조모임인 하모니 브릿지가 축하 공연을 선보여 개강식의 열기를 더했다.

‘하모니 브릿지 동아리’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합창 소모임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됐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노래’라는 공통 언어로 하나 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다채로운 음식이 어우러진

화음을 통해 개강식에 참석한 결혼이민자 동료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하모니 브릿지의 활동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주체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조모임 활성화는 한국 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튼튼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모니 동아리는 풍성한 활동을 위해 새로운 신규 단원을 상시 모집 중이다. 문의 031-376-3428

송하성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사업 6인 위촉...‘맞춤형 정착 서비스 제공’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 9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결혼이민자 멘토 위촉식을 성황리에 개

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한국 생활에 먼저 안착한 선배 결혼이민자들이 멘토가 되어 후배 결혼이민자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위 촉된 멘토들은 앞으로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 및 센터 회원 등록 연계 ▲센터 프로그램 이용 안내 ▲행정기관·병원·은행 동행

및 안내 ▲자녀 양육 및 생활 고충 상담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SNS 서포터즈 활동을 병행하며, 한국 적응에 유용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다문화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멘토들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선배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1명), 일본

(1명), 베트남(1명), 캄보디아(1명), 중국(2명) 등 총 6명의 결혼이민자가 멘토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소외감을 공감하며 정서적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시가족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 유학생이 원하는 입학·학업·취업·정주까지 한번에 해결

노상은 오산대 국제교류원장, 뛰어난 역량으로 3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한국의 대학 입학 정원은 약 50만명으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수 약 42만명 보다 훨씬 많다. 이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구조 조정 등의 압박을 받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는 전문대학 중에서도 모범적인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을 운영해 호평을 얻고 있다. 3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됐으며 GKS, GKS-UIC 사업,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대학(K-CORE) 등에 잇달아 선정됐다. 지난 17일 노상은 국제교류원장을 만나 오산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과 운영 노하우를 들어봤다.

-오산대 국제교류원을 소개해 주세요.

“오산대는 1979년에 설립된 40년 전통의 사립 전문대학교입니다.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약 30개 학과에 약 6,5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유학생은 23개국에서 온 152명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원은 이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학업, 한국어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산대는 유학생 학위과정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산대학교는 유학생 만족도와 유학생 선발 및 입학 적절성, 유학생 관리와 성과, 유학생 공인 어학능력 등 13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GKS(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GKS-UIC 사업,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대학 등에도 잇달아 선정됐습니다.”

-유학생 유치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 어떻게 선발하나요?

“다양한 장학금과 양질의 교육, 취업 지원을 통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지만 아무나 뽑지는 않

습니다. 어학연수 과정만 해도 고교 3년 성적과 결석 등 출석일수, 학업계획, 자기소개 등의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심사를 반드시 실시해 정말로 오산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학생을 선별합니다. 또한 한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학 시에도 토픽(TOPIK)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마다 추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유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대학교에서 오산대로 이동하는 유학생도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오산대에 입학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오산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이기 때문에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용시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유학생 비자 연장시 재정능력 입증 의무가 없으며 공학계열 학과를 졸업하면 전문숙련 비자(E-7-1) 취득 및 취업, 한국 정주가 유리합니다. 이런 혜택은 오산대가 K-CORE 사업 등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장학금 혜택도 풍부해 성적 장학금 외에도 특별 장학금을 최대 120만원까지 추가 지급합니다. 현재 오산대 유학생 중에는 학비의 80%를 면제받는 학생이 상당수 있습니다. 학부 재학 유학생에게는 출석률이 일정 시간 이상만 되어도 기숙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국제교류원은 유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국제교류원은 학부 재학 유학생에게 한국어 수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3, 4단계)을 교양수업과 연계해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연간 4회 한국문화체험과 8회 학과 체험을 무료 제공하며 한국 기업탐방,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비자 문제도 어렵지 않도록 행정 사항의 교내 처리를 지원하며 연간 20명 내외의 필리핀, 호주 해외 연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한국 생활과 학업에 걱정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원장직을 수행하며 고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제교류원장직을 맡으며 이 업무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육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지만 한국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개인 뿐만 아니라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학생을 유치 관리하는 국제교류 업무에는 많은 사업 목적이 있지만 어떤 가치 보다 교육을 우선해 일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에 대한 학교의 기대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제교류원이 학교의

제1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대학 정원은 많다 보니 모집률과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유학생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산대 국제교류원은 올해 유학생 커뮤니티센터와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단독 건물로 확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총장님의 지원과 대학 모든 부서들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어 위상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제교류원을 운영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오산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은 유학생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내국인 학생들에게 느꼈던 보람을 이제 외국인 유학생에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생의 학업과 지역사회 적응, 취업 및 정주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와 법률 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산대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학생 한 명 한 명이 한국 사회에서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송하성 기자



구리시 다문화가족도 알면 도움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구리시, 재외동포 이해교육 모집·소규모 학습모임 모집·여성안전용품 신청 등



재외동포 이해교육 모집

구리시 토평도서관은 4월 8일부터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시로 만나는 중국동포 이야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다문화 특화도서관인 토평도서관에서 문학 작품을 매개로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4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은주 시인이 맡아 진행한다. 분단과 이산의 역사를 함께 살아온 재외동포의 삶을 조명하고, 중국 동포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 고향과 이산, 정체성의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월 8일 오전 9시부터 구리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토평도서관(031-550-8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재외동포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 학습모임 모집

구리시는 지역 내 소규모 교육 거점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습모임을 4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학습모임 운영 장소에 따라 「구리시 우리 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두 분야로 나뉘며, 상반기에는 총 40개 학습모임을 선정해 팀당 45만 원의 감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프로그램과 강사, 학습공간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평생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강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리시청 평생학습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적합성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학습모임은 5월 4일부터 7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소규모 학습모임 지원사업은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배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생활 밀착형 학습모

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동네 학습공간’ 신규 모집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우리 동네 학습공간’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학습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평생학습 포털 또는 평생학습과(031-550-2186)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안전용품 신청

경기도가 여성 가구 주거지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여성,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등 총 1,000가구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각 시군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고양시와 부천시에는 자체 계획에 따라 사업을 별도 운영하므로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등 해당 시군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시군에서는 접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 중 스마트 홈카메라와 호신용 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최선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여성안심패키지는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라며 “지원 물량이 한정된 만큼 신청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2026 아버지역할지원 프로그램 - '아빠하고 나하고' 5월

아빠와 함께 꽃피는 시간

오목꽃도 만들고, 종이접도 꾸며보아요 ♥

- * 일시) 5월 16일 토요일 12:00~17:00
- * 장소) 구리시가족센터 잔디마당 여성행복센터 1층(아차산로 453-1)
- * 주제) '아빠와 함께 꽃피는 시간'
- 아빠와 함께 모루꽃 컵 만들기
- * 대상) 구리시 아버지+자녀(초등 저학년 자녀 우선)
- *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문의) 가족사업팀 070-8895-9263

구리시 가족센터

구리시가족센터

4월 모두가족봉사단 플로깅

일시
2026.04.18(토)
10:00~12:00

장소
구리시가족센터 교육장 2
이문안 호수공원 일대

대상
모다가족봉사단

내용
✓ 환경교육 수강
✓ 플로깅 활동

기초학습지원

봄 체험학습

일시 2026년 4월 25일(토)

장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20, 두리랜드

대상 기초학습지원에 참여 중인 아동

주요활동
- 실내 놀이기구 활동
- 곤충박물관 체험
- 실외 놀이기구 활동

문의 ☎ 070-8895-9262
☎ 070-4149-4909

CHECK LIST

- ☐ 편안 복장·운동화
- ☐ 개인 소지품 가방
- ☐ 개인 상비약 (해당자)
- ☐ 오전 출발시간 9시
- ☐ 오후 도착시간 5시

구리시 가족센터

'2026 Gyeonggi Climate Insurance' Raises Diagnosis Benefits and Establishes Death Consolation ... Foreign residents also receive benefits

Gyeonggi Province has launched the '2026 Gyeonggi Climate Insurance,' which significantly strengthens coverage benefits by doubling diagnostic fees and introducing a new death consolation payment.

This year's Gyeonggi Climate Insurance has increased coverage amounts and added new coverage items to directly alleviat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residents.

First, the diagnosis benefit for heat- and cold-related illnesses, which was 100,000 won last year, has been increased by 50% to 150,000 won this year, and the diagnosis benefit for infectious diseases has also doubled from 100,000 won to 200,000 won.

To provide robust coverage for unexpected severe weather-related damages, new items have been established for a death consolation payment of 3 million won and an emergency room visit fee of 100,000 won. For accidents occurring when a weather advisory is issued, such as for heatwaves, heavy rain, or heavy snow, you can still receive the existing climate disaster accident consolation payment if you are diagnosed with an injury exceeding a certain standar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who are the first to be hit by climate change, has also been significantly strengthened. Previously,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for heat- and cold-related illnesses were provided only to recipients of the visiting health care program, but starting this year, approximately 70,000 pregnant women have been newly added. As a result, a total of 220,000 climate-vulnerable individuals will be subject to relaxed diagnostic criteria for accident compensation and will be protected more safely through various additional support funds. Gyeonggi Climate Insurance

automatically enrolls any resident with a registered address in Gyeonggi-do, including registered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without any separate procedures. Furthermore, we have extensively revamped the claims system to ensure that no resident misses out on benefits due to lack of awareness or gives up because the claims process is cumbersome. We plan to operate a mobile claims support service in each city and county, introduce a simplified claims method using mobile messengers, and establish a dedicated integrated call center to handle the entire process from application to payment in a single step.

We plan to establish a dedicated integrated call center to handle the entire process from claim reception to payment in one go.

This year, we have secured a foundation for providing stable services by signing a contract with the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Consortium for climate insurance. The project period is one year, from April 11 of this year to April 10 of next year, and insurance benefits for accidents occurring during this period can be claimed at any time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f the accident.

Park Dae-geun, Head of the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Division of Gyeonggi Province, stated, "The fact that over 51,600 insurance claims were filed last year is a clear indicator that the climate crisis has already become a reality threatening the daily lives of residents," adding, "As we have expanded benefits by reflecting the voices of residents, such as raising diagnostic fees and adding coverage for pregnant women, we will build a reliable Gyeonggi Province where everyone can be protected from climate disasters without discrimination." <한글 기사 1면>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등의 증상이?
'홍역' 예방수칙 지키는 센스!

홍역이란? 기침 또는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음

※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
※ 면역체계가 취약한 1세 미만 영유아는 홍역 유행국 방문 자제,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백신접종 후 출국

홍역 주요증상 (잠복기 7-21일)

전구기

발진기

회복기

해외여행, 환자 접촉 후 의심증상?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대중교통 이용 자제)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예절 지키기

올바른 손씻기

홍역 예방접종(MMR)
2회 접종력 확인

홍역 예방백신(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회 접종력 확인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구리시

구리시보건소

Guri Family Center

2026년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Guri Family Center

구리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도래관계 및 학교 생활 부적응, 사회성 부족, 가족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자녀와 보호자에게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2026.4.7 ~ 6.23 매주 화요일

지원내용

다문화 자녀 및 보호자 심리 상담 (총 10회기)

지원기간

4/7 ~ 6/23 매주 화 (10회, 4/28, 5/5 제외)
16:00~16:50 | 17:00~17:50 | 18:00 ~ 18:50

지원대상

구리시 거주 중인,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다문화·외국인·중도입국가족 2~3가정 (선정지원)

신청방법

2026년 3월 4일(수) 16:00까지 전화 신청

신청·문의

구리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 031-556-0651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아동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구리시 가족센터

GURI FAMILY CENTER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3월 26일,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북부 요리 프로그램 ‘다(多) 함께! 요리조리’를 진행했다.

‘다(多) 함께! 요리조리’는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식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회기에는 한국 고유의 양념인 고추장과 된장 만들기를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양념의 재료와 사용법, 조리 순서를 익히고 한국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며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 초급반 학습자들의 참여가 많아,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었다.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도움을 받아

요리를 완성하고 함께 식사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서로 가까워졌다.

이날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는 “처음으로 감사에게 직접 요리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한국 식재료가 생소해 요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센터에서 마련해 준 기회를 통해 직접 만든 음식이 맛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식생활 문화의 차이가 일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031-615-3963 송하성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역할지원 ‘아빠랑 플레이데이’ 운영해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4월 4일, 다문화교류소통공간 다가온에서 영아기 자녀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빠랑 플레이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빠랑 플레이데이’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하여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4~36개월 영아와 아버지 총 18명은 그림책을 통해 주제를 알아보고, 병아리와 닭 등 그림책 속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교구재로 오감놀이를 진행했다.

특히 병아리콩을 활용한 촉감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유롭게 만지고 느끼며 감각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고, 아버지들은 아이의 반응에 맞춰 함께 놀이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높였다. 이러한 활동은 영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로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빠들은 “아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눈을 맞추고 웃음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었고, 아이와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평소보다 더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와 함께 놀 수 있어 좋았고, 일상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했던 놀이를 통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아기 자녀와의 놀이 및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아버지와 영아기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경험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드림로드(Dream Road) 진로설계지원사업

'개인심리상담'

어떤 고민이든 같이 이야기해보자!

신청하기

*상담을 진행하는 학생은 추후 대학탐방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우선권 혜택 제공

참여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8세~16세 (10명)
모집일정	상시(10명 모집 시 마감)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진행내용	주 1회 40분, 총 10회기 진행
상담일시	월~금 (10:00 ~ 17:00) *개인일정에 따라 조율 가능
상담장소	평택시가족센터 1층 상담실
문의	가족교육팀 031-651-3904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 상시프로그램

다가온 건강이

YOGA 요가 CLUB

기다리고 있을게!

모집기간 2026.4.13 - 4.30.

★ 모집대상	결혼이민자 및 내국인 15명
★ 장 소	다가온(평택2로 125) 2층 대강당
★ 기 간	5월 11월(월) ~ 7월 22일(수) / 매주 월, 수 11:00~12:00
★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 문 의	031-692-2461 다가온

* 사전연락없이 3회 이상 결석시 추후 프로그램 참여 제한 발생

* 내국인의 참여 비율 전체 인원의 30% 모진

* 진행 장소와 일정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요가 신청 QR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A팀 B팀 숨 클레이 체험

비용 무료!

봄꽃 & 바다 비누 만들기

모집기간: 2026. 4. 6.(월) ~ 4. 20.(월) / 신청가족 개별 문자

일 시	2026. 4. 25.(토) 10~12시(A팀), 13~15시(B팀)
내 용	숨 클레이로 직접 봄꽃과 바다생물을 만들고 비누를 굳히는 활동
모집대상	보호자-자녀(3인 이하)로 구성된 가족 / A, B팀 각 7가족
장 소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분소(안중읍 서동대로 1557, 3층)
신청방법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QR코드) / 부모-자녀 모두 신청
문 의	031)660-7472 통합지원팀
신청 관련	- 사업취지상 다문화, 비다문화 비율 고려 있음 - 문화소통 프로그램 4번 이상 참여자 후순위 배정 - 신규 참여가족 우선, 직전 당일 취소 이력자 페널티 적용

B팀

평택시

평택시가족센터

전문 의료 및 발달지원 서비스

평택시가족센터,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협약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4월 1일 센트럴이비인후과·마미톡키즈발달클리닉(이하 협약기관)과 지역사회 아동 복지 증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비롯해 검사·치료·교육 지원에 협력하며, 지역사회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발달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센트럴이비인후과·마미톡키즈 발달클리닉 홍준형 병원장은 “전문적인 의료 및 발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가족 지원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031-615-3952 송하성 기자

편백나무 베게 만들기 함께 해요

평택시가족센터, 내외국인문화소통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4월 9일과 10일,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본소에서 다문화·비다문화 지역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편백나무 베게 만들기’(양말목공예)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외국인의 교류를 확대하고, 원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양말목 공예의 기본 뜨기 방법을 익힌 후, 편백 블록 주머니를 활용한 베게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공예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소감을 나누며 활동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원주민은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외국인 주민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미 센터장은 “평택은 외국인 주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인식 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031-660-7472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기간:2026.06.01.(월) 9:00 ~ 06.30. (화) 18:00

***주말,공휴일(6월3일 지방선거) 제외**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세 ~ 18세 다문화가족 자녀 (2008. 01. 01. ~ 2019. 12. 31. 출생자)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능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1회지급) -NH농협카드 포인트 지급 (2026. 11. 30까지 사용)
신청장소 -평택시가족센터서부본소 (경기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57 서부복지타운 3층 305호)	문의처 -통합지원팀 031-660-7477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접수가 아닌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청방법

- 1.지원자격확인
- 2.전화 후 방문예약 및 필수 구비서류확인
- 3.'평택시가족센터서부본소'에서 신청서 작성
- 4.'자녀'이름으로 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 5.NH농협카드(실물)로준비

***예약 접수 후 방문/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PYONGTAEK CITY FAMILY CENTER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해요~

평택시, 진드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 당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진드기 노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고위험군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강화 : 감염병 다발생 지역과 고위험군(야외근로자, 농업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대상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예

방수칙 홍보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한다. ②‘치명률 높은 SFTS’ 주의... 예방수칙 준수 필수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SFTS는 치명률이 높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③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 야외활동 후 5~14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 송하성 기자

공동육아
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영유아를 위한 신나는 음악놀이

오르프 음악여행

대상: 평택시거주 24년 11월 ~ 25년 10월 출생 유아 1인 보호자 1인
20가정(쌍둥이는 정원미달시 2명 참여가능, 보호자 2인 참여)

수업일정: 2026. 5. 11.(월) ~ 6. 15.(월) 매주 월요일 5회
A반 : 10시 ~ 10시 40분 (25년 5월 ~ 10월 출생 유아 10가정)
B반 : 10시 50분 ~ 11시 30분 (24년 11월 ~ 25년 4월 출생 유아 10가정)
* 수업료 무료, 5회 재료비 5,000원(수업진행 후 재료비 환불불가)

장소: 공동육아나눔터2호점(고덕국제대로 202 르포랑@ 내)

접수: 2026. 4. 20.(월) 10시30분 ~ 홈페이지 접수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신청->
'[공육2]오르프 음악여행A,B' 선택 클릭 후 신청 (참여확정 후 개별연락)
(접수가 참여를 의미하지 않고 참여확정 후 개별연락 드립니다)

주의사항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1회 이상 공간 이용자, 프로그램 신규 참여자 우선
접수되고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가족센터 회원가입 하고 가족추가 후 함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자녀 동시 신청이 아닌 경우 참여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인과 유아 1인 외 다른 가족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활동사진, 개인정보 사용동의 필수 문의: 031-611-0308(공육2호점)

A반 신청마로가기

B반 신청마로가기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공동육아
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영유아를 위한 신나는 음악놀이

오르프 음악여행

대상: 평택시거주 24년 11월 ~ 25년 10월 출생 유아 1인 보호자 1인
20가정(쌍둥이는 정원미달시 2명 참여가능, 보호자 2인 참여)

수업일정: 2026. 5. 14.(목) ~ 6. 11.(목) 매주 목요일 5회
A반 : 10시 ~ 10시 40분 (25년 5월 ~ 10월 출생 유아 10가정)
B반 : 10시 50분 ~ 11시 30분 (24년 11월 ~ 25년 4월 출생 유아 10가정)
* 수업료 무료, 5회 재료비 5,000원(수업진행 후 재료비 환불불가)

장소: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세교6로45 힐스테이트 2차 @ 내)

접수: 2026. 4. 23.(목) 10시30분 ~ 홈페이지 접수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신청->
'[공육1]오르프 음악여행A,B' 선택 클릭 후 신청 (선착순 접수 아님!!)
(접수가 참여를 의미하지 않고 참여확정 후 개별연락 드립니다)

주의사항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1회 이상 공간 이용자, 프로그램 신규 참여자 우선
접수되고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가족센터 회원가입 하고 가족추가 후 함께 신청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자녀 동시 신청이 아닌 경우 참여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인과 유아 1인 외 다른 가족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활동사진, 개인정보 사용동의 필수 문의: 031-654-0903(공육1호점)

A반 신청마로가기

B반 신청마로가기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2026년 아버지역할지원사업

아빠랑플레이데이

아동기(신체활동)

체험대상
8~11세(16~19년생) 자녀와
아버지 20명(10가족)
* 아동기 아버지교육 이수자 우선 선정

체험내용
아빠와 함께하는 아동 신체활동
(실내 액티비티, 레이저태그 게임 등)

체험일시
2026.05.16.(토)
10:00~12:00

체험장소
알액션
(경기 평택시 비전5로 20-36 403호)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https://pfkc.familynet.or.kr/center/index.do>)

신청하기

공지사항

평택시가족센터 문의) 031-615-3965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 (Dream Road)

평택시가족센터

이제는 꿈을 찾을 시간!

진로직업

동기부여 특강

신청QR

2026년 함께 꿈꾸며 진로를 탐색할 다문화 아동,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 및 모집인원
2026. 05. 09 (토) 10:00~13:00 1회차
2026. 05. 16 (토) 10:00~13:00 2회차

운영장소
평택시가족센터 (서정로 295)

프로그램 내용
1차시: OT 및 동기부여 자극
2차시: 미래 직업탐색
3차시: 시간관리 및 목표 계획 설정
4차시: 직업의 본질 이해
5차시: 직업과 직업정보 습득
6차시: 나만의 드림 로드맵 제작

모집대상 - 20명
만 8세 ~ 16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있는 다문화 아동, 청소년 누구나
(외국인가족, 난민가족 포함)

모집기간
2026. 04. 13. (월) - 05. 01. (금)
대상자 개별연락

접수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문의전화: 가족교육팀 031-615-3904



메이크업으로 전문성 높이고 자립 지원! 평택시가족센터, '내일공작소 메이크업국가자격증반'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4월 2일 엘라뷰티아카데미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을 개강했다.

동행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 취득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문기술 습득과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교육에는 몽골, 태국, 일본 등 5개국 출신 결혼이민자 12명이 참여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배우고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증반은 총 48회기로 진행되며, 국가자격 취득을 목표로 이론과 실기 교육이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중심의 기술을 익히고, 향후 취업 및 창업

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자격증반 참여자들은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수 있어 기대된다”, “배운 기술을 취업에 활용하고 싶다” 등 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취업 준비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 여러분의 전문성 향상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격 취득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031-615-3955

송하성 기자

평택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모기 활동 빨라졌다 방역 가동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질병관리청의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매개 모기 종합 방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의보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예년보다 일찍 발견되면서 지난 3월 20일 발령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수치다. 일본뇌염은 감염 시 뇌염으로 진행되면 치사율이 높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방역 취약지역 1088곳의 전수 점검을 마치고, 6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해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했다. 특히 3월부터 시작된 유충구제 사업을 통해 1963개소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모기 활동기에 앞서 축사, 논두렁, 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평택시는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사용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방충망 정비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2013년 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고, 고위험군 성인 및 위험 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적극 권장했다.

이지은 기자

필라테스로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해요

평택시가족센터, 동아리 ‘다(多)함께 필라테스’ 지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4월 8일,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분소에서 결혼이민자 및 비다문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多)함께 필라테스’ 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 다문화 및 비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동아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 간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4명의 참여자들은 이날 기구 없이 요가매트를 활용한 필라테스를 통해 기본 호흡과 동작을 익히고, 신체의 균형과 정렬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스트레칭과 코어 강화 운동을 병행하며 근력과 유연성을 기르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체험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지역주민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필라테스를 가까운 곳에서 체험할 수 있어 좋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평택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660-7471

송하성 기자

평택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6월까지 연장...고위험군 반드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에 대비하여, 기존 4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기간을 오는 6월 30일(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되며, 접종 대상은 '25-'26절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이다.

이미 접종 완료한 면역저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면역 형성과 유지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접종 간격 90일을 준수하여 5월 1일부터 추가 1회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 접종하면 되며,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 면역 형성이 중요하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직업교육으로 경제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돕는 '미용자격증반'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4월부터 10월까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미용자격증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행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격증 기반의 직업교육과 실습 연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소양교육, 미용 교육 및 실습, 지역기관 연계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미용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하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 후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기술을 직접 활용하며 실무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 취득까지 지원해 자립 역량과 사회적응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로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양평군 '2026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실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양평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종합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인 2026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4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음식점 및 유료 관광지를 이용하는 경우다.

인센티브는 숙박 여부와 관광지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숙박 관광의 경우 1인당 1박은 2만 원, 2박은 4만 원이 지원되며, 당일 관광은 유료 관광지 방문 횟수에 따라 1인당 5천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단체관광 사전 계획서와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 이용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20일 이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기획팀(031-770-1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변화의 중심
가치의 경기

매력양평

2026년 결혼이민자 동아리모임활성화지원사업

동아리모임 회원모집

동아리 1

동아리 2

모집기간

2026. 4. 13. ~ 4. 24.

모집대상

각 동아리별 결혼이민자 8명

※ 1인 1개 동아리 신청 / 중복 지원 불가 ※

동아리 1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활동기간 : 5/23(토) ~ 10/24(토) 10:00 / 총 12회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 요일 변동될 수 있음)
장소 : 강상면 SNPE 경기양평점

동아리 2

식물 공예
힐링 프로그램

활동기간 : 5/12(화) ~ 10/13(화) 14:30 / 총 6회
(매월 둘째주 화요일)
장소 : 센터 교육실

참가비용

₩

1인 20,000원

신청방법

전화접수 후
온라인 신청 필수

문의

가족사업3팀
031-775-5951

가정

일상을 함께하는 양평 길라잡이
양평군 가족센터

부부의 날 기념행사

부부, 함께의 가치를 나누다

2026. 5. 19. (화) 14:00~17:00

양평도서관 물빛극장

행사내용 | 부부 특별 공연 무대
모범부부 표창 및 기념식
명사특강 '이호선' 교수

신청대상 | 양평군 지역주민(선착순)
신청기간 | 4. 20. (월) ~ 5. 15. (금)
신청방법 | 양평군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문의사항 | ☎031)775-5957

명사특강

이 호 선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상담학 박사
송실사이버대학교(학과장) / 한국노인상담센터(센터장)

가정

일상을 함께하는 양평 길라잡이
양평군 가족센터



다문화 인식개선과 가족친화문화 조성 광주시가족센터,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 위촉식

광주시가족센터는 지난 4월 7일, 센터 강의실에서 ‘2026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몽골과 필리핀을 비롯한 7개국 출신 강사 12명이 위촉되었으며, 이 중 2명은 올해 새롭게 선발된 신규 강사이다. 위촉식에서는 강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교육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2026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개선과 다양한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2026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운영 방향과 추진 일정, 교육 대상별 프로그램 구성, 강사 활동 시 유의 사항 및 교육 운영 기준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강사 간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은 지역사회 내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유아동 기관과 청소년 기관, 성인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다양한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다양성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가족센터는 2026년에도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상호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힘을 계획이다. 031-798-7141 송하성 기자

向全体70%国民发放10万~60万韩元的“高油价补贴金”

政府为缓解中东战争带来的高油价・高物价给民众带来的困难，决定推进缓解高油价负担三大政策。我们来看一下详细内容吧？

平民层高油价补贴金

补助金额根据地区和收入水平不同而有所差异，越偏远、越弱势群体，获得的补助越多。计划向收入下位70%的国民发放每人10万~60万韩元。具体按居住地区来看，首都圈10万韩元，非首都圈15万韩元，49个人口减少优待地区20万韩元，40个人口减少特别地区25万韩元。估计有3256万人受益。另外，约36万名单亲家庭・次上位阶层发放45万韩元，其中非首都圈、人口减少优待・特别地区每人追加发放5万韩元。同时285万名基础生活保障对象中，首都圈居民将发放55万韩元，非首都圈、人口减少优待・特别地区居民将追加5万韩元，共支援60万韩元。外国人仅限结婚移民者和永久居留者可领取。该补助将以“地区货币”形式发放，仅可在当地加盟商户使用，以促进地方经济。发放将分为第一轮和第二轮进行，具体对象和时间将由相关部门讨论后另行公布。还有一项政策是面向全体国民推进的。政府为了减轻国民的油费和交通费负担，计划暂时将K-Pass返还率扩大到30%，鼓励大众交通使用及减轻交通费。〈중략, 한글 기사 28면〉

광주시,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 대상자 35가구 모집

광주시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여성 안심 종합 지원사업’ 대상자 35가구를 오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시책으로 여성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 등에 방법 안전 물품을 무상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이상이 포함된 한부모 가족이며, 신청 기간 내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물품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A세트는 스마트 도어벨, 문 열림 감지기, 창문 이중 잠금장치 2개, 발광다이오드 안전 호루라기로 구성되며, B세트는 스마트 홈 카메라, 문 열림 감지기, 창문 이중 잠금장치 2개, 발광다이오드 안전 호루라기로 제공된다. 이지은 기자

자격증 취득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4월 2일 동행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다이어 프로그램’의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전문교육이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5월 중순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에는 한국 정착

중·장기 단계의 결혼이민자 5명이 참여하며, 체계적인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에스프레소 추출, 커피 이해 등 바리스타로서의 기초 역량을 단계적으로 습득하게 되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가족센터는 이 과정 이후 바리스타 1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희 센터장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는 ‘다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과 심화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가족상담 안내

모두가 봄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시간



이런 분들께 필요해요

- ☑ 가족 및 부부 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일상의 스트레스로 힘든 경우
-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용 안내

- 월요일 ~ 목요일 09:00~18:00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18:00~21:00
- ☑ 상담 이용료
 - 1회기 10,000원
 - 개인상담 8회기
 - 부부 및 가족상담 10회기

상담 문의 031-798-7138



광 주 시 가 족 센 터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

멘토·멘티 서비스

이용 안내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이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1대1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 신규등록 지원
★ 멘토가 센터 회원가입 안내
- ☑ 프로그램 이용 연계
★ 멘토가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멘토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서비스 지원 (병원, 우체국, 은행 등)
★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상담을 멘토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지원

신청방법

★ 도움을 필요한 날짜의 최소 2일 전까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멘토에게 1대1로 연계해 드립니다.

지원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영어, 스페인어
★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멘토·멘티 활동 이용 가능

문의처

070-4706-3733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 담당자



광 주 시 가 족 센 터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제공

학부모님의 원활한 학교 소통을 돕기 위해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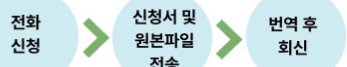
지원대상

1. 다문화 가정 학부모
2.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보호자
3. 외국어로 안내가 필요한 모든 가정
4.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원내용

1. 학교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 제공
* 주요 안내문 및 공지사항 번역
* 필요 시 개별 안내문 번역 지원
2. 학교 상담 통역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과 교사 간, 중도입국자녀와 교사 간 상담 통역 지원 (중국어, 베트남어 가능)

이용절차



지원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 기타 언어는 별도 문의

비용

무료제공

문의

중국어 070-4706-3744
베트남어 070-4706-3733



광 주 시 가 족 센 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용 안내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역

- 1) 가족간 의사소통 통역
- 2) 교육 과정 통역
- 3) 병원, 동사무소, 은행, 법원,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동행 통역
- 4)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관련 통·번역 지원 : 주거, 생계, 의료지원 등

번역

- 1)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학구부, 처방전 등
 - 2) 이혼청구서, 양육비 청구서
 - 3) 범죄경력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관련 서류 번역
 - 4) 어린이집, 학교 가정통신문 등
- ★ 베트남어, 중국어 외 타언어 (영어, 필리핀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번역 요청 시 인근 가족센터로 연계 가능합니다.

정보제공

- 1) 임신, 출산, 양육 등 일상생활 관련 정보
- 2) 국적취득 신청, 친정부모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정보 제공
- 3) 광주시가족센터 관련 프로그램 안내 등
- 4) 고용센터 업무 :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 서비스 제공 및 신청 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등 통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외부 출장지원 등
* 다른 언어에 대한 통·번역은 인근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중국어 통·번역사 : 070-4706-3744
베트남어 통·번역사 : 070-4706-3733



광 주 시 가 족 센 터

현장 중심의 실습과 교류 진행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교육



광주시가족센터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성인기 교수법: 참여를 이끄는 강의 만들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3월 31일과 4월 1일, 7일, 8일 등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됐으며, 다문화 이해교육 활동 강사와 양성과정 수료자가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습과 교류가 함께 이루어졌다.

교육은 강사 간 교육 경험을 나누고 다문화 이해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이어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교수법과 강의 설계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 이어졌다. 특히 대상자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교육 전략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강의자료

(PPT) 제작 실습과 강의 시연, 피드백 과정을 통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강사 간 상호 피드백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강사는 “성인 대상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상에 맞는 강의 방법을 직접 고민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다른 강사들과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사 역량강화를 통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상호 존중과 포용의 가치를 확산하며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힘을 계속할 계획이다. 031-798-7141 이지은 기자

여성 능력개발과 취창업 지원!

광주시, 여성비전센터 여성 수강생 모집해요

광주시는 여성비전센터 개소 초기 인지도 확산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상반기 프로그램 시범 과정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복지행정타운 9층에 개소한 여성비전센터는 기존 여성문화센터 기능에 여성 취업·창업 지원 기능을 통합한 공간으로 지역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번 시범 과정은 여성비전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민들이 센터를 직접 경험하고 앞으로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

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4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은 하루 과정 특강 형태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4월 20일 오전 9시부터 4월 27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광주시 평생학습포털 ‘어흥’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나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

방세환 시장은 “여성비전센터가 지역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31-760-4607 이지은 기자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владеющ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техническими навыками, смогут легче закрепиться в Корее

«Развивающ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техничес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закрепл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 качестве ключевых кадров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фициально стартовали. <Фото =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истр Чон Сон Хо) 26 марта в большом за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Квачхоне провело церемонию вручения табличек и сертификатов 16 колледжам, назначенным по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вающ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техниче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вести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будущего.

«Развивающ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техничес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 это программы в колледжах, отобранные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для системного подготовки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со средним уровнем (язык, образование, навык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отребностям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н Сон Хо, ректоры 16 колледжей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узов; после вручения табличек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на которой обсудили меры по успешному внедрению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вающ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техничес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K-CORE, E-7-M) — это система,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систем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обладающих знан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навыками, с целью их закрепления в качестве ключевых кадро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в регионах. Иностранц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языковому требованию (ТОPIK уровень 3) и поступившие на та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т финансовых требований при получении студенческой визы; такж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разрешенное время подработки с текущих 30 до 35 часов. Кроме тог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обучения пр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н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абочую визу (E-7-M), а в дальнейшем — получить преимущества при подаче на визу проживания (F-2).

«Развивающ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технические специальности» уже начали первые занятия с март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были равномерно отобраны 6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и 10 — из провинций, что, как ожидается, поможет облегчить нехватку рабочей силы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ассчитывает, что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проекту ежегодно до 800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будут направляться в региональные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Иностранцам, желающим поступить в эти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рекомендуется сначала определить желаемую специальность и затем связаться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колледжем по телефону.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н Сон Хо в своей речи отметил: «Теперь необходимо отойти от прежнего подхода прямого привлечения рабочей силы из-за рубежа и перейти к созданию замкнутого цикла...〈중략〉

파과야스토리

보고 사고 체험하는 친환경 도자문화마켓

제40회 이천도자기축제와 함께하는 이천도자문화마켓 열린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1일간 이천도자예술마을과 사기막골도예촌 일원에서 ‘제7회 이천도자문화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천도자기축제와 연계해 추진되며, 도자기 판매와 함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표 프로그램인 ‘업사이클링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은 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해 열쇠고리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원하는 방문객은 깨끗한 플라스틱 병뚜껑 5개를 준비해 현장에서 제출한 뒤 친환경 캠페인 동참 서명 절차를 거쳐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하루 30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이천도자예술마을 도자기축제 운영존에서, 5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사기막골도예촌

으로 장소를 옮겨 이어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자기 구매와 연계한 3D 스캐닝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기술 협조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축제장 내에서 10만 원 이상 도자제품을 구매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현장)에서는 얼굴을 3D로 스캔한 뒤 입체방향제 또는 도자 액자 중 하나를 선택해 제작할 수 있으며, 완성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고 결과물은 개별 배송된다. 평일 20명, 주말 및 공휴일 30명까지 체험할 수 있으며, 체험권 교환과 프로그램 운영은 행사 기간에 이천도자예술마을 전시존에서 진행된다.

행사장 전반에서는 친환경 도자식기 사용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함께 운영된다.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안내와 홍보가 병행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이천시, 농식품 바우처 대상 ‘청년’ 확대 시행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신선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먹거리 안전망 구축 사업을 홍보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많아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

됐다. 기존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1992년~2007년생)’ 가구원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지원 금액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4인 기준 월 10만 원에서 10인 이상 가구의 경우 월 최대 18만 7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 알류 등이다. 031-6190-7331 송하성 기자

이천시, 봄나들이 전 진드기

감염병 예방수칙 필수 확인

이천시보건소(소장 한미연)는 봄철 기온 상승과 함께 진드기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대표적으로 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이 있다. 주로 농작업, 등산, 나물 채취, 공원 산책 등 야외 활동 중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발열, 두통,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등 감기 몸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가운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주요 원인인 참진드기는 고열과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을 동반하고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일명‘살인진드기’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져 있다. 참진드기는 풀숲, 산, 농경지 등에 서식하며 사람이나 동물에 부착해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현재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으로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기 ▶야외 활동 후에는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작업 시 돗자리 등 깔개 사용 ▶바짓단을 양말 안에 넣어 진드기 접근 차단 ▶기피제(에어로솔, 로션형 등) 적절히 사용 등을 안내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 공예 동아리 모임

공예 클래스 회원 모집

공예 활동 관심에 있는 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 이천 결혼이민 여성 (6회기 참석 가능자)
진행 기간 : 4월 11일 ~ 9월 30일
진행 일정 : 매달 둘째 주(토) 14:00~16:00
진행 장소 : 리네공방 (이천시 남천로 75-1)
신청 방법 : 이천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프로그램 내용	
1회. 전통매듭팔찌	4회. 원석팔찌
2회. 원석목걸이	5회. 써지컬목걸이
3회. 써지컬팔찌	6회. 전통매듭키링

신청 문의 : 070-4176-5154

 이천시가족센터
ICHEONGFAMILY CENTER

2026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디지털교육지원

AI활용특강

교육 내용

- chat GPT 활용법
- 미리캔버스 활용법
- 캔바 활용법

교육 일정

- 4/21~5/12(총6회기)
- 매주 화, 목
- 09:30~12:30 디지털교육장

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포함
- 다문화가족구성원
- 외국인주민 등
- (성인 우선접수)

신청방법

- 4/8(수) 오전9시~15명
- 센터홈페이지에서 신청
- QR코드접속 후 신청

 신청 QR

 이천시가족센터
ICHEONGFAMILY CENTER

2026년 "언어로 넓어지는 아이의 세상"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모 집 요 강

사업 내용 추 2회 11 언어교육 실시(40분), 최대 12개월 지원

모집 대상 이천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자녀**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가능)

교육 장소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가정방문 불가

신청 방법 -센터 방문 (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
-전화신청

 이천시가족센터
ICHEONGFAMILY CENTER

☎ 070-4176-5151

5월가족사랑의날

요리조리 생일파티(2)



파티초대장 QR



★참여조건★

1순위) 엄마/아빠 중에 한분이라도 생일이 5월인가족

2순위) 엄마/아빠 한분이라도 생년월일에 숫자5가 들어가는 가족

❁ 진행일시 : 5/15(금), 18:30

❁ 진행장소 : 센터 가운실(313호)

❁ 진행내용 : 케이크만들기&생일파티하기

❁ 신청기간 : 4/27(월), 14시~선착순 10가족

❁ 신청방법 : 이천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수

- 1 가족구성원마다 각각 회원가입(미성년자는 부모님폰으로 인증)
- 2 가족대표(주로 신청하는 분) 로그인+ 마이페이지 가족구성원 추가
- 3 프로그램 신청하기+가족구성원추가 확인 후 신청

이천시가족센터
ICHEONFAMILY CENTER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이천시가족센터에서는 전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모집기간 | 1월~12월 연중수시모집

2 모집대상 | 결혼이민자 및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포함)

3 프로그램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4 수업시간 | 대상자와 지도사가 협의 후 주중 주 2회, 2시간(쉬는시간20분포함)수업진행

5 문의전화 | 031-637-5525

※ 방문교육서비스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맞춤형복지팀) 신청
※ 방문교육은 한 가정에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나의 서비스가 끝난 후 다른 서비스 제공 가능

이천시가족센터
ICHEONFAMILY CENTER



통역서포터즈 이용안내

언어가 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통역서포터즈 함께합니다

지원 언어 (총 8개 언어)

베트남어, 일본어, 태국어, 러시아어,
영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중국어,...



- ✓ 행정기관 방문 및 상담 통역
- ✓ 병원 이용 시 동행 통역
- ✓ 교육 및 학교 상담 통역
- ✓ 기타 일상생활 의사소통 지원



다양한 언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문의 및 신청
070-4176-5154

이천시가족센터
ICHEONFAMILY CENTER



2026 여름방학 청소년 해외캠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 완료

【글로벌 리더의 꿈】
미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탐방 10일



- 프린스턴 / 유엔 / 코넬 / 하버드 / 예일 / M.I.T
- 캠퍼스투어 및 재학생 멘토링
- 나이가아라 폭포
- 자유의여신상 유람선
- 국회의사당, 탄원스퀘어, 엠파이어스테이트

7월 17일 출발 / 585만원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시간】
미서부 드림UP 테마탐방 10일



- 스탠포드/UCLA 캠퍼스투어 및 재학생 멘토링
- 3대 캐년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스캐년
- 유니버설 스튜디오
- 금문교, 베이브루트 탑승
- 그리피스 천문대, 할리우드

7월 22일 출발 / 598만원

▶ 참가대상
초등 5학년 ~ 고등 3학년
청소년 30명 선착순 모집

▶ 참가문의
02-6959-4424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와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

여름방학을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더유스 여름방학 캠프에 초대합니다.

참가신청



상담문의



【교과서 밖 위대한 유산】
서유럽 핵심 3개국 문화탐방 9일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 루브르 박물관 큐레이터 투어
- 생제르망 구경투어,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 니더호른 등정, 빈사의 사자상
- 콜로세움, 트레비분수, 건물의 입
- 베니스 곤돌라 탑승

7월 26일 출발 / 598만원

【유럽의 보석을 만나다】
동유럽 필수 4개국 문화탐방 10일
체코/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



- BMW박물관, 바이에른 왕궁구경투어
- 미라벨정원, 비엔나 대학교 탐방
- 센트럴궁전, 어부의 요새,
영웅광장 탐방
- 프라하 야경투어, 다뉴브강 유람선투어

8월 6일 출발 / 598만원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GLOBAL GOOD FRIENDS (GGF)

THE YOUTH
청소년 여행대상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와 청소년여행대상 더유스가 주최/주관 합니다.

WWW.THEYOUTH.CO.KR

1인가구가 건강한 운동 습관과 지역사회 관계망 만들어요!

광명시가족센터, 1인가구 건강과 소통 함께 잡는 ‘런천미터 러닝크루’ 운영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3월부터 관내 1인가구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런천미터 러닝크루’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1인가구 급증과 함께 운동 부족 및 사회적 고립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광명시가족센터는 1인가구가 건강한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내 촘촘한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러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3월부터 6월까지 그룹별 총 24회기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주 2회 전문 러닝코치의 지도 아래 부상 방지 및 올바른 주법을 익히는 ‘전문 코칭 과정(8회기)’과 참여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운동을 독려하는 ‘자율 그룹 러닝(16회기)’으로 구

성되었다. 체계적인 훈련과 정서적 교류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1인가구의 높은 관심 속에 최종 40명이 선정되었으며, 지난 3월 23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

런천미터 러닝크루 프로그램에 참여한 1인가구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러닝하며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고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전문 코치에게 러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겠다” 등의 참여 의지를 밝혔다.

남은정 센터장은 “1인가구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체적 건강

과 정서적 지지를 아우르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가족센터는 1인가구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정신건강돌봄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다. 컬러테라피와 음악을 활용한 신체 이완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센터는 ▲중장년 수다살롱(3~11월) ▲식생활개선다이닝(4~5월, 10~11월) ▲생활꿀팁바구니(6~8월) 등 1인가구를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 방문 또는 ☎02-6265-13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2026년 광명시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사업 안내
혼자의 일상에 함께하는 변화를 더합니다

동네 친구,
여기 있어요!

광명시가족센터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중장년수다살롱	건강돌봄프로그램
<p>공동 관심사를 나누는 중장년 1인가구 동아리 활동 (월 2회 / 총 18회기, 3~11월)</p>	<p>러닝과 오감치유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건강 프로그램 (러닝크루 24회기, 3~6월 오감치유 6회기, 8~9월)</p>

광명시가족센터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식생활개선다이닝	생활꿀팁바구니	에코솔로
<p>함께 요리하며 소통하는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6회기, 4~5월 / 10~11월)</p>	<p>살림과 생활관리를 배우는 식생활 꿀팁 프로그램 (6회기, 6~7월 / 7~8월)</p>	<p>비건요리와 집수리 등 친환경 생활 실천 프로그램 (6회기, 6~7월 / 9~10월)</p>

광명시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사업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참여대상	신청방법
<p>경기도 거주 1인가구 (광명시 거주자 우선선발)</p>	<p>광명시가족센터 홈페이지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참여시 등본제출 필수)</p>

경기도 거주
1인가구라면 누구나!

광명시가족센터

문의 안내

광명시가족센터 가족지원1팀
02-6265-1366

함께하는 일상, 지금 바로 참여해보세요

광명시가족센터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시행일 2025. 1. 10.

외국인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법무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영주증	모바일 국내거소신고증
<p>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실물 외국인등록증을 접촉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용 QR 코드를 활용하여 발급</p>	<p>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인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신원 증명 가능</p>	

2p

Tỉnh Gyeonggi hỗ trợ thiệt hại sức khỏe do khí hậu như nắng nóng, rét đậm và bệnh truyền nhiễm... thậm chí hỗ trợ cả chi phí phòng cấp cứu

Tỉnh Gyeonggi đã triển khai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năm 2026” với việc tăng tối đa gấp đôi chi phí chẩn đoán và bổ sung khoản hỗ trợ tử vong, qua đó nâng cao đáng kể quyền lợi bảo hiểm.

Trong năm nay,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đã tăng mức chi trả và bổ sung các hạng mục bảo hiểm mới nhằm trực tiếp giảm gánh nặng chi phí y tế cho người dân trong tỉnh.

Trước hết, chi phí chẩn đoán cho các bệnh do nắng nóng và rét lạnh đã được tăng 50%, từ 100.000 won năm ngoái lên 150.000 won trong năm nay, đồng thời, chi phí chẩn đoán bệnh truyền nhiễm cũng được tăng gấp đôi, từ 100.000 won lên 200.000 won.

Để tăng cường bảo đảm cho các thiệt hại nghiêm trọng do khí hậu xảy ra bất ngờ, đã bổ sung khoản hỗ trợ tử vong 3 triệu won và chi phí khám cấp cứu 100.000 won. Đối với các tai nạn xảy ra khi có cảnh báo thời tiết như nắng nóng, mưa lớn hoặc tuyết rơi dày, nếu được chẩn đoán chấn thương đạt mức tiêu chuẩn nhất định, vẫn có thể nhận được khoản hỗ trợ tai nạn do thiên tai khí hậu giống như trước đây.

Việc hỗ trợ dành cho các hộ khó khăn, những

người chịu ảnh hưởng đầu tiên từ biến đổi khí hậu cũng đã được tăng cường hơn nữa.

Trước đây, chỉ những người thuộc chương trình quản lý sức khỏe tại nhà mới được hỗ trợ chi phí nhập viện do bệnh liên quan đến nắng nóng và rét lạnh, cũng như chi phí khám ngoại trú, nhưng từ năm nay, khoảng 70.000 phụ nữ mang thai đã được bổ sung vào đối tượng hỗ trợ. Nhờ đó, tổng cộng 220.000 người thuộc nhóm suy nhược do khí hậu sẽ được áp dụng tiêu chuẩn chẩn đoán nhận hỗ trợ tai nạn được nới lỏng, đồng thời được bảo vệ an toàn hơn thông qua các khoản hỗ trợ bổ sung khác nhau.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được tự động áp dụng cho tất cả cư dân có đăng ký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 bao gồm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ý và người gốc Hàn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mà không cần thủ tục riêng. Ngoài ra, hệ thống yêu cầu bồi thường bảo hiểm đã được cải tổ toàn diện nhằm tránh tình trạng người dân không nhận được quyền lợi do không biết hoặc từ bỏ vì thủ tục phức tạp. Tỉnh sẽ triển khai dịch vụ hỗ trợ yêu cầu bồi thường bảo hiểm khí hậu trực tiếp tại từng địa phương, áp dụng phương thức yêu cầu đơn giản

qua ứng dụng nhắn tin di động, đồng thời xây dựng trung tâm tổng đài chuyên trách để xử lý toàn bộ quy trình từ tiếp nhận đến chi trả trong một lần.

Năm nay, bảo hiểm khí hậu đã ký hợp đồng với liên danh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qua đó thiết lập nền tảng cung cấp dịch vụ ổn định. Thời gian thực hiện dự án là 1 năm, từ ngày 11 tháng 4 năm nay đến ngày 10 tháng 4 năm sau, đối với các sự cố xảy ra trong thời gian này, tiền bảo hiểm có thể được yêu cầu bất cứ lúc nào trong vòng 3 năm kể từ ngày xảy ra sự cố.

Ông Park Dae-geun, Trưởng phòng Môi trường, Y tế và An toàn tỉnh Gyeonggi cho biết: “Việc có hơn 51.600 hồ sơ yêu cầu bồi thường bảo hiểm trong năm ngoái là con số rõ ràng cho thấy khủng hoảng khí hậu đã trở thành thực tế đe dọa đời sống hằng ngày của người dân.” Đồng thời ông nhấn mạnh “Chúng tôi đã tăng quyền lợi như nâng mức chi phí chẩn đoán và bổ sung đối tượng là phụ nữ mang thai, phản ánh ý kiến của người dân, qua đó sẽ xây dựng một tỉnh Gyeonggi vững chắc, nơi mọi người đều được bảo vệ khỏi thiên tai khí hậu mà không có sự phân biệt.”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ของปี 2026” เพิ่มเงินค่าชดเชยกรณีวินิจัยโรค และจัดตั้ง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กรณีเสียชีวิตใหม่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เริ่ม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ของปี 2026” ซึ่งมีการเพิ่มเงินชดเชยกรณีวินิจัยโรคสูงสุดเป็นสองเท่า และจัดตั้ง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กรณีเสียชีวิตใหม่ พร้อมทั้งเสริม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อย่างมาก

ในปีนี้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ของปี” ได้ปรับเพิ่มวงเงิน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 และเพิ่มรายการ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ใหม่ เพื่อช่วยลดภาระค่าใช้จ่ายทางการแพท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โดยตรง

ก่อนอื่น เงินชดเชยกรณีวินิจัยโรคจากโรคที่เกิด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และความหนาว ซึ่งเดิมอยู่ที่ 100,000 วอน เมื่อปีที่แล้ว ได้ปรับเพิ่มขึ้น 50% เป็น 150,000 วอน ในปีนี้ ขณะที่เงินชดเชยกรณีวินิจัยโรคติดเชื้อมีเพิ่มขึ้นเป็นสองเท่า จาก 100,000 วอน เป็น 200,000 วอน

เพื่อให้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กรณี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รุนแรงจาก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ที่ไม่คาดคิดอย่างครอบคลุมยิ่งขึ้น ได้มีการจัดตั้งรายการใหม่ ได้แก่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กรณีเสียชีวิตจำนวน 3,000,000 วอน และ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จากการเข้าห้องฉุกเฉินจำนวน 100,000 วอน นอกจากนี้ ในกรณีเกิดอุบัติเหตุระหว่างที่มีการประกาศเตือนภัยสภาพอากาศ เช่น 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ฝนตกหนัก, หรือหิมะตกหนัก หาก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ย บาดเจ็บตามเกณฑ์ที่กำหนด ก็ยังคง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อุบัติเหตุทาง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ได้เช่นเดิม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ต่อ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ซึ่ง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เป็นกลุ่มแรก ได้รับการเสริมความเข้มแข็งมากยิ่งขึ้น เดิมทีมีการ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 เช่น 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กรณีเข้ารับการรักษาใ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จากโรคที่เกิด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และความหนาว รวมถึงค่ารักษา ผู้ป่วยนอก เฉพาะผู้ที่อยู่ในโครง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เชิงเยี่ยมบ้านเท่านั้น แต่ตั้งแต่ปีนี้เป็นต้นไป ได้มีการเพิ่มหญิงตั้งครรภ์ประมาณ 70,000 คน เข้ามาเป็นกลุ่มผู้ได้รับสิทธิใหม่

ด้วยเหตุนี้ 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ด้าน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รวมทั้งหมด 220,000 คน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ปรับใช้เกณฑ์การวินิจัยเพื่อ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 จากอุบัติเหตุที่พบบ่อยมากขึ้น และ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ยิ่งขึ้นผ่านเงินสนับสนุนเพิ่มเติมในหลากหลายรูปแบบ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ของปี” กำหนดให้ประชาชนที่มีทะเบียนบ้านอยู่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ทุกคน ไม่ว่าจะ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ลงทะเบียน หรือชาวเกาหลีที่ถือสัญชาติ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ได้โดยอัตโนมัติ โดยไม่ต้องดำเนินการขั้นตอนสมัคร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นอกจากนี้ เพื่อป้องกันไม่ให้ประชาชนพลาดการ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เพราะไม่ทราบข้อมูล หรือยกเลิกการยื่นคำร้องเนื่องจากขั้นตอนยุ่งยาก จึงได้มีการ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 การยื่นคำร้องครั้งใหญ่ โดยจะให้บริการช่วยยื่นคำร้องเคลมประกันแบบเข้าถึงพื้นที่ในแต่ละเมืองและเขต พร้อมทั้งนำวิธีการยื่นเคลม แบบง่ายผ่านแอป

แชตมาไซ์ และจัดตั้ง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แบบบูรณาการเฉพาะทาง เพื่อให้สามารถดำเนินการตั้งแต่การรับเรื่องจนถึง การจ่ายเงินได้ในครั้งเดียวครบวงจร

ในปีนี้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ได้ทำสัญญากับกลุ่มพันธมิตร (คอนซอร์เทียม) ของบริษัท Meritz Fire & Marine Insurance เพื่อวาง รากฐานในการให้บริการที่มีความมั่นคง ระยะเวลาดำเนินโครงการอยู่ที่ 1 ปี ตั้งแต่วันที่ 11 เมษายน ปีนี้ ถึงวันที่ 10 เมษายน ปีหน้า และเงินประกันสำหรับอุบัติเหตุที่เกิดขึ้นภายในช่วงเวลาดังกล่าวสามารถยื่นขอรับได้ทุกเมื่อภายในระยะเวลา 3 ปี นับจากวันที่เกิดเหตุการณ์

พีด แต่กิน หัวหน้าฝ่ายสิ่งแวดล้อม สุขภาพ 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ล่าวว่า “การมีการยื่นเคลมประกันมากกว่า 51,600 กรณี ในปีที่ผ่านมา เป็นตัวเลขที่ชัดเจนแสดงให้เห็นว่าวิกฤต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ได้กลายเป็นภัยคุกคามต่อ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แล้ว” พร้อมเสริมว่า “จากการเพิ่มเงินชดเชยกรณีวินิจัยโรค และการเพิ่มกลุ่มหญิงตั้งครรภ์ โดยสะท้อนเสียง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ทำให้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 เพิ่มขึ้น ดังนั้นจะเดินหน้าสร้า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ที่เข้มแข็ง เพื่อให้ทุกคน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จากภัยพิบัติทาง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อย่างเท่าเทียม โดยไม่มี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2026년 좋은 부모학교

사춘기 자녀와 건강한 관계 만들기

부모의 소통 역량을 키우는 시간

이해하는 부모, 발전하는 관계!

교육 개요

일시 2026년 5월 12일(화), 19일(화) 19:00~21:00

장소 온라인(ZOOM) *교육 참여시, 카메라 ON / 조용한 환경에서 참여

대상 사춘기 자녀를 둔 양육자 20명

교육 내용

1회기 : 5/12(화) 19:00~21:00

2회기 : 5/19(화) 19:00~21:00

신청 방법

신청 QR코드를 통한 구글폼 신청

기간 5월 5일(화) 까지 신청

문의 070-4725-2713 (가족지원3팀)

광명시가족센터

<부부특성화지원사업>

2026 좋은배우자학교 첫걸음부부

인생의 가장 설레는 첫걸음을 앞둔 예비부부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특별 활동

모집 개요

교육일정 1주차 : 4월 4일 (토) 09:30~12:30
2주차 : 4월 11일 (토) 09:30~12:30
3주차 : 4월 18일 (토) 10:00~12:00

교육장소 광명시평생학습원 402호

신청대상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에 관심있는 광명생활권 커플 10쌍(신청순)
*커플 중 한명이라도 광명생활권 해당되면 참여가능

신청기간 03.09.(월)~03.26.(목)

신청방법 구글폼 신청

문의 070-4725-2910

교육 및 활동 내용

1주차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 행복한 커플 대화법

2주차 결혼 생활 체크리스트 (원가족, 건강, 자녀, 가사 등)

3주차 웨딩퍼스널컬러 교육 (커플 퍼스널컬러 체크 및 퍼스널 컬러 기반 드레스-티셔도-웨딩홀 추천 등)

강사 소개

전보영 -한마루관계연구소장
-덕성여대, 세종대, 성균관대 강사
-서울시 가족센터 예비부부 강사 (3년 우수강사 선정)

장소현 -로디 퍼스널컬러 Rou.D 대표
-이화여자대학교원 색채디자인 석사
-정생물 아카데미 출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광명시가족센터

구분	프로그램명	일시	접수	대상	인원	내용
가족 생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파견사업	4/1~4/30	마감	다문화강사	강사 6명, 아동 594명	다문화이해교육진행(정기파견)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	4/1~4/30	상시	다문화가족자녀 초등 1학년~초등 6학년	14명	학령기 다문화아동에게 기초국어, 기초수학, 기본 학습지원
가족 돌봄	[온가족보듬] 가족상담	4/1~4/30	상시	광명시민	50가정	정서안정을 위해 개인, 부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온가족보듬] 사례관리	4/1~4/30	상시	광명시 내 취약위기 가정	30가정	취약, 위기가정 대상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특성화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4/1~4/30	상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자녀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4/1~4/30	상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9명	1:1 언어발달교육, 부모상담 언어발달평가, 평가 상담
	한국어 교육	4/1~4/30 (월~금)	상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	65명	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진행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4/1~4/30	상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100명	통역,번역, 정보제공 및 위기 상황 긴급 지원 등
일반 사업	홍보사업	4/1~4/30	상시	광명시민	-	-4월호 뉴스레터 발송 -센터 및 사업 홍보
	후원 및 자원봉사자 관리	4/1~4/30	상시	다문화가정 및 취약계층	-	취약계층 후원물품 수시나눔
별도 사업	경기육아나눔터 <시설운영>	4/1~4/30	상시	광명시 거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및 보호자	-	-나눔터 상시이용 -나눔터 상시프로그램 -가족풍요이 활동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4/1~4/30	상시	만 12세 이하 아동	-	초등학교 이하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구분	프로그램명	일시	접수	대상	인원	내용
가족 생활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사업	4/1, 4/16	마감	광명시 거주 다문화 가정	266명	다문화 신문을 통해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정보 제공
가족 관계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4/4~4/25	마감	다문화가족	44명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수업 진행
	다문화아동 이중언어교육	4/4~4/25	마감	광명시 거주 6세 아동~ 중학생	52명	이중언어교육(중국어/베트남어)진행
	좋은 부모학교	4/2, 4/9	마감	영아가 자녀 양육자	10명	영아가 자녀 발달에 따른 이해 및 놀이 교육 진행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적응지원	4/3~4/29 (월, 수, 금)	상시	중도입국자녀	7명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가족 돌봄	자조모임	4/1~4/30	마감	광명시 다문화, 비다문화 가정	4그룹 (30명)	소통, 교류 자조모임
지역 공동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4/1~4/30	마감	광명시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다문화강사 7명/아동 355명	다양한 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이해교육 진행
	가족사랑의 날	4/22	4/10 ~4/15	광명시 거주 및 자녀가 있는 가족	5가정 (10명)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가족봉사단 '그리나'	4/5	마감	광명시 내 7세 이상 자녀를 둔 가족	40명	가족봉사단 그리나 식목일활동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4/11, 4/25	상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2인 이상 부모·자녀 가족	40명	다문화, 비다문화 가족 대상 평가 합작 연수 진행
	결어서 광명속으로	4/25	4/6~ 4/20	광명시 거주 2인 이상 가족	40명	- 광명 경기 탐방 오리엔테이션 진행
	1인가구지원사업 -종장년 수다살롱	4/1~4/30	마감	경기도 거주 종장년 1인가구	15명 (5그룹)	-그림별 월 2회 활동
	1인가구지원사업 -건강돌봄프로그램 '라넵크루'	4/1~4/30	마감	경기도 거주 1인가구	40명 (2그룹)	-전문 러닝코치 지도(8회기) -자율 러닝활동(16회기)
	1인가구지원사업 -식생활개선다이어닝 '냉면도시'	4/9~4/30	마감	경기도 거주 1인가구	15명	냉면교 재료 활용 요리실습, 원편요리, 보안함을 배우는 프로그램 (6회기)
별도 사업	라떼파파	4/1~4/30	마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와 아바	8가정 (4그룹)	-자조모임(아바&자녀)
	아이돌봄비 2차 집담회	4/25	마감	광명시 소속 아이돌봄비	175명	활력프로그램 및 집담회
	경기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4/13~4/29	~4/6	광명시 거주 5세~7세 아동, 보호자	18가정 (나눔터 3개소)	동화 속 작은 정원 이야기

부모의 실제 양육 고민 해결해요

광명시가족센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좋은 부모학교’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2026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좋은 부모학교’를 새롭게 추진한다.

‘좋은 부모학교’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부모가 겪는 다양한 양육 고민을 해소하고, 양육 역량 강화를 통한 부모-자녀 관계 증진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첫 운영을 시작했으며, 3월 19일과 26일 총 2회기에 걸쳐 자녀 발달 이해 및 긍정적 양육 방법 교육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 김모 씨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유익했고, 실제로 아이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매우 만족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좋은 부모학교’ 프로그램은 ▲영아기 부모교육(4월) ▲사춘기 부모교육(5월) ▲예비부모교육(6월) ▲양육코칭(7월) ▲부모-자녀 진로캠프(8월) ▲입학 설명회(10~11월) 등으로 구성되며, 자녀 발달 단계별 특성과 부모의 실제 양육 고민을 반영한 교육으로 연중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남은정 센터장은 “부모교육은 가족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명시가족센터는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2-6265-136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취업 희망하는 모든 여성 지원한다

광명시, ‘취업탄탄’ 집단상담으로 첫걸음 지원해요~



광명시가 취업을 꿈꾸는 여성들의 첫걸음을 함께 한다.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창업과 이·전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취업탄탄’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수시 모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의 구직 역량 향상과 심리적 자신감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총 14회기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자존감 향상 ▲직업정보탐색 ▲직업심리검사 ▲구직기술 향상(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효과적인 의사소통 ▲취업희망 분야탐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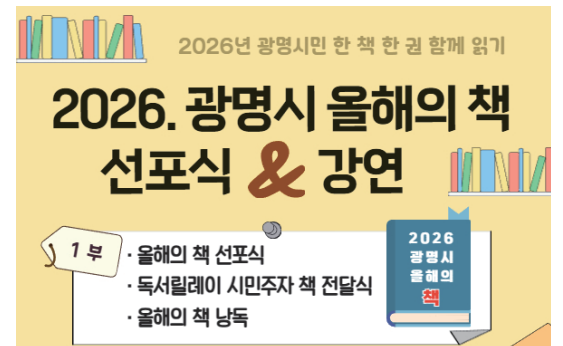
으로 구성한다. 참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일 4시간씩 3일간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수료생들은 “균형 있고 핵심적인 내용이 도움이 됐다”, “서류·면접 준비에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됐다”는 소감을 전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매년 수료생의 98%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200명 이상이 꾸준히 수료하고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홈커밍 데이’와 ‘마음, 안녕’ 등 사후 특강을 진행해 취업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간다.

최옥남 일자리경제과장은 “정보 부족이나 심리적 부담으로 도전을 망설이는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참여자들께서 노동시장 이해를 높이고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02-2680-67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이주민도 일상 독서문화 확산 광명시민 책 한 권 읽기 시동



광명시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 확산에 나선다. 광명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소하도서관 강당에서 ‘2026년 광명시민 책 한 권 함께 읽기’ 올해의 책 선포식을 개최한다.

‘광명시민 책 한 권 함께 읽기’는 시민이 같은 책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광명시 대표 독서 진흥 사업이다.

이번 선포식은 올해의 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독서릴레이 시작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광명시는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민 추천 공모를 진행해 총 177권을 접수했다. 이후 자체 심사와 시민 선정위원회 심의를 두 차례 거쳐 연령대별 최종 3권을 확정했다.

2026년 광명시 올해의 책은 ▲일반 부문 〈빛이 이끄는 곳으로〉(백희성 저) ▲청소년 부문 〈울의 시선〉(김민서 저) ▲어린이 부문 〈언제나 다정 죽집〉(우신영 저)이다.

선정된 도서들은 세대별 고민과 공감을 담고 있다. 일반 부문 〈빛이 이끄는 곳으로〉는 파리 오래된 저택을 배경으로 가족과 사랑에 관한 기억을 건축가 시선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청소년 부문 〈울의 시선〉은 세상과 거리를 두던 중학생이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성장 이야기를, 어린이 부문 〈언제나 다정 죽집〉은 동네 죽집을 배경으로 공동체가 지닌 따뜻한 의미를 전달한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올해의 책 선포와 더불어 독서릴레이 첫 시민주자 책 전달식, 시민대표 낭독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건축가이자 소설가인 백희성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 작품 속 공간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릴레이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상 속 독서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방침이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올해의 책 선포식은 시민과 함께 한 해 독서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많은 시민이 선포식과 작가 강연에 함께해 책을 매개로 서로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성남시가족센터는 지난 4월 11일,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힙팻 만들기(감성화분 만들기)’ 프로그램

을 진행했다. 7세~13세 자녀와 아버지 총 30명이 참여한 이날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직접 화분을 디자인하고 식물을 심는 과정을 함께하며 소통했다.

특히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자녀와 함께 만들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이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해 나가는 것이 좋았다.” 등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31-756-9327(내선 1번)

이지은 기자

성남시, 홈캠 등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3종 44가구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예방과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심 홈세트 3종’을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스마트 도어벨, 홈캠, 문열림 센서다.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 부모(모자, 부녀)가족이면서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거주자다. 지원 물량은 44가구다.

성남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뒤 대상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4월 20일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또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를 통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보내면 된다. 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unghun2@korea.kr)로 해당 서류를 보내도 된다.

성남지역 1인 가구 수는 3월 말 기준 전체 41만325가구의 39%인 16만661가구다. 이 중 여성 1인 가구는 48%인 7만7845가구다.

성남시는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5년간 576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했다.

이지은 기자

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60만원 지급...K-패스 환급률도 높여

민생에 플러스
돈탄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 지급

구분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서민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해요. 소득 하위 70% 국민

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에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에 25만 원을 지급해요. 대략 325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돼요. 또한 약 36만 명의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중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은 1인 당 5만 원을 추가해 지급해요. 아울러 기초수급자 285만 명 중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을 지급하며, 역시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해 총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해요. 한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지역화폐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했어요.

지급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하는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에요.

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또 있어요.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와 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30%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를 경감할 방침이에요.

또한 저소득 계층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LPG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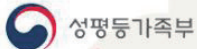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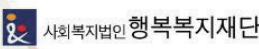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 약 20만원이 돼요.

또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의 지원을 외국인주민 전체로 확대하기를 바래요.

〈중국어 19면, 베트남어 33면, 러시아어 5면, 태국어 33면, 영어 5면〉

송하성 기자



온가족 보듬사업

가족센터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가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기능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개인 및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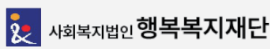
서비스내용

- 가족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위기지원
-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청소년(한)부모 법률지원
- 생활용품 지원
- 학습정서/생활도움지원 보듬매니저 파견
- 면접교섭서비스
- 가족관계 회복 지원



상담 및 문의
가족사례관리사업
031-756-9327(내선2)

성남시가족센터
SEONGNAM CITY FAMILY CENTER



Happy with us

'태국·일본 문화나눔행사'



태국



일본

- 체험부스 : 음식 · 놀이 · 언어 · 전통의상
- 만들기 체험 : (태국)코끼리, (일본)사무라이 만들기
- 포토존

*모든 활동을 무료로 진행됩니다. / 당일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14:00~17:00

대상 : 성남시민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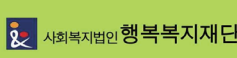
장소 :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 로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문의) 외국인복지팀 ☎ 031-754-7070



성남시가족센터





2026년 한국어교육 2학기 접수

성남시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수준별·목적별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6년 4월 20일(월) ~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네이버밴드 접수링크 게시)
★추후 "가족센터(familynet.or.kr)"에서 반별 수강신청 필수★
- 대 상 : 결혼이민자
- 수업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 7월 29일(수)
- 개설과정 (오전 3개반 레벨테스트 진행 : 단계별수료자, 토픽자격증 소지자, 재수강 제외)

구분	반명	수준	요일	시간	수업장소	회기	비고
오전반	즐거운 한국어 2	초급2	월-목	10:00~13:00	센터	40회기, 120시간	대면
	즐거운 한국어 3	중급1	월-목		센터	40회기, 120시간	대면
	즐거운 한국어 4	중급2	월-목		센터	40회기, 120시간	대면
오후반	즐거운 한국어 1	초급1	월-목	13:30~16:30	센터	40회기, 120시간	대면
야간반	중급2 + 비즈니스한국어	중급	월-목	19:00~21:00	각 가정	40회기, 80시간	온라인

오전반/오후반 주교재 2권 개별 구매(접수 후 개별 안내 / 대형서점 또는 인터넷서점 별도 구매)
야간반 교재는 센터에서 배부해 드립니다(접수 후 개별 안내)

- ※ 선착순 마감 후 개별 연락해 드립니다.
- ※ 개강 후 수강생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반 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교육 중 자녀돌봄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주차비 지원 불가(유료주차장 이용 가능),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 ※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 문의 : 031-757-9327(내선1번, 추회영)

성남시가족센터



2026년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부모·가족코칭 2그룹



성남시가족센터는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중언어 부모코칭

사춘기 자녀 이해 및 건강한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가정 내 이중언어 지도 전략

일시: 6/1(월), 6/8(월) 오전 10시~12시

장소: 각 가정에서 수강

방법: ZOOM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이중언어 활용

아이를 위한 건강하고 영양만점 간식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일시: 6/5(금), 6/12(금), 6/18(목), 6/26(금) 오전 10시~12시

장소: 수정구보건소 조리실습실

방법: 대면활동 참여 후 가정 내 연계 활동하여 사진 제출

부모-자녀 상호작용

가정에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를 재미 있게 배우는 프로그램

일시: 6/15(월), 6/22(월), 6/29(월), 7/6(월) 오전 10시~10시 40분

장소: 각 가정에서 수강

방법: ZOOM 실시간 교육에 참여 후 가정 내 활동 진행하여 사진 제출

※ 해당 프로그램은 총 10회기이며, 전체 참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회기 참석이 가능한 가정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 요리교실은 자녀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자녀 동반 참여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 |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 8가정
☑ 다문화가족, 외국인·재외동포·난민·북한이탈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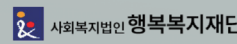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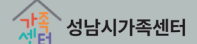
신청기간 | 2026년 4월 6일(월)부터 ~ 선착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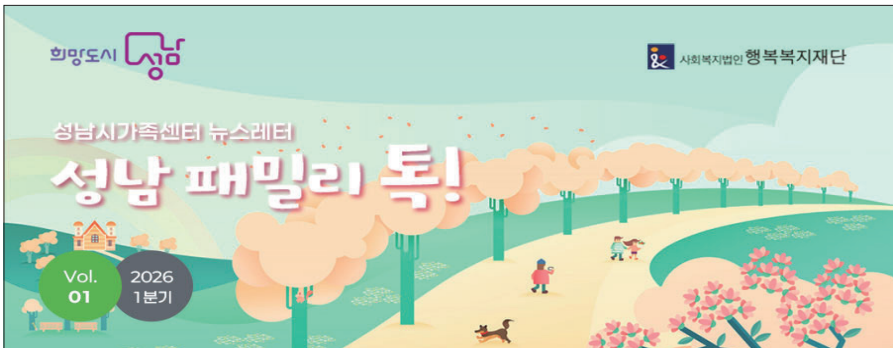
신청방법 | 전화예약 후 방문접수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

문 의 | 031-757-9327(내선5번)


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링크 바로가기







5월 프로그램 안내

운영 예정일	프로그램명	참여대상	모집예정일
5/2(토) 10:00-12:00	몽골어 이중언어교실 1회기 : 몽골 위생·수도 등 알아보기	몽골 출신 부모를 둔 만3세~만8세 아동	3/9(월)~마감시 ☎031)757-9327 내선5
5/5(화) 10:00-15:00	건강가정 인식개선 캠페인 : 제29회 성남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성남시민	-
5/9(토) 10:00-12:00	몽골어 이중언어교실 2회기 : 모양 관련 어휘, 몽골 국기 알아보기	몽골 출신 부모를 둔 만3세~만8세 아동	3/9(월)~마감시 ☎031)757-9327 내선5
5/10(일) 11:00-16:00	건강가정 인식개선 캠페인 : 제15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 행사	성남시민	-
5/10(일) 11:00-17:00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 제15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	성남시민	사전접수 없이 참여가능
5/16(토) 10:00-12:00	몽골어 이중언어교실 3회기 : 가족 관련 어휘, 몽골 전통의상 알아보기	몽골 출신 부모를 둔 만3세~만8세 아동	3/9(월)~마감시 ☎031)757-9327 내선5
5/23(토) 10:00-12:00	몽골어 이중언어교실 4회기 : 5대 가족 관련 어휘, 유목민 생활 알아보기	몽골 출신 부모를 둔 만3세~만8세 아동	3/9(월)~마감시 ☎031)757-9327 내선5
5/27(수) 19:00-21:00	패밀리데이: 온가족 공연데이	7~13세 자녀와 부모	5/18(월)~5/22(금)
5/30(토) 10:00-12:00	몽골어 이중언어교실 5회기 : 숫자 관련 어휘, 몽골 사자놀이 알아보기	몽골 출신 부모를 둔 만3세~만8세 아동	3/9(월)~마감시 ☎031)757-9327 내선5
5/30(토) 10:00-14:00	예비부모학교 (예비)부모 교육 및 문화체험	임산 중인 부부	5월 초
5/30(토) 10:00-14:00	외국인주민 자조모임 자원봉사 (종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외국인주민 자원봉사자	상시모집

6월 프로그램 안내

운영 예정일	프로그램명	참여대상	모집예정일
6/1(월) 10:00-12:00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2그룹 1회기 : 사춘기 자녀 이해와 소통법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등	4월 중 모집 예정 ☎031)757-9327 내선5
6/5(금) 10:00-12:00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2그룹 2회기 : 영양교육&조리실습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등	4월 중 모집 예정 ☎031)757-9327 내선5
6/8(월) 10:00-12:00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2그룹 3회기 : 사춘기 자녀 이중언어 지도 전략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등	4월 중 모집 예정 ☎031)757-9327 내선5
6/12(금) 10:00-12:00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2그룹 4회기 : 영양교육&조리실습②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등	4월 중 모집 예정 ☎031)757-9327 내선5
6/13~7/4 (매주 토요일) 10:00-12:00	온가족보듬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 "우리는 한가족"	성남시 거주 한부모·자녀 대상	5/1(금)~6/12(금)
6/15(월) 10:00-11:00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2그룹 5회기 : 소중한 나의 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등	4월 중 모집 예정 ☎031)757-9327 내선5
6/18(목) 10:00-12:00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2그룹 6회기 : 영양교육&조리실습③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등	4월 중 모집 예정 ☎031)757-9327 내선5
6/20(토) 10:00-12:00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성남시 거주 7~13세 자녀와 아버지(1:1)	5/27(수)~6/17(수)
6/20(토) 13:30-15:00	결혼준비학교 (예비)부모 교육 및 문화체험	(예비)신혼부부	6월 초
6/22(월) 10:00-11:00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2그룹 7회기 : 말랑말랑 밀가루 반죽놀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등	4월 중 모집 예정 ☎031)757-9327 내선5
6/24(수) 13:30-15:00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부모교육 (종원구청 연계)	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6/24(수) 19:00-21:00	가족사랑의 날: 일에 체험	7~13세 자녀와 부모	6/15(월)~6/19(금)
6/26(금) 10:00-12:00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2그룹 8회기 : 영양교육&조리실습④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등	4월 중 모집 예정 ☎031)757-9327 내선5
6/27(토) 10:00-12:00	감성프로젝트 : 영유아기 자녀·부모 1:1 숲 체험	영유아기 자녀와 부모	6월 중
6/27(토) 10:00-14:00	외국인주민 자조모임 자원봉사 (종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외국인주민 자원봉사자	상시모집
6/29(월) 10:00-11:00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2그룹 9회기 : 대곡대굴 달걀찜 놀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등	4월 중 모집 예정 ☎031)757-9327 내선5

※운영 일정 및 모집 일정, 주제는 센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1332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
TEL: 031-755-9327 | FAX: 031-755-5335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 함께!

성남시가족센터의 특별한 프로그램 확인

성남시 가족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
성남시가족센터가 함께 만듭니다.

한국어교육 참여자 모집

성남시가족센터는 5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일상생활, 자녀양육, 취업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개설과정은 초급 1단계, 초급 2단계, 중급 1단계, 중급 2단계, 중급2+비즈니스한국어 등 5개 과정이다.

또한 한국문화체험, 백일장, 인권교육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사회 이해를 돕고 학습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031-757-9327(내선 1번)

온가족보듬사업 운영

성남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와 함께 양육, 돌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한다.

온가족보듬사업은 기존의 대상자 중심의 개별적 지원을 넘어 상담, 교육, 돌봄, 사례관리 등을 가족단위의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유형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이 심화되기 전에 개입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가족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031-756-9327(내선2)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중언어 참여자 모집

성남시가족센터는 '2026년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2그룹'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부모코칭(사춘기 자녀 이해 및 건강한 의사소통 등)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영양교육 및 요리활동)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놀이를 통한 부모의 모국어 학습 등)으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을 통해 가정 내 실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참여 가족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자녀의 언어 발달과 정서적 안정, 가족 간 유대감 형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31-757-9327(내선 5번)

일본·태국 문화나눔행사

성남시가족센터는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5시에 센터 1층 로비에서 일본과 태국 자조모임이 함께 준비한 문화나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일본식 닭꼬치(야끼토리)와 태국식 소시지(싸이그릭) 등 대표 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음료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전통의상 체험, 놀이 프로그램, 포토존 촬영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이 마련되어 있다.

성남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70-4495-7744

이지은 기자



이주민 이해 높이고, 문화 차이 존중!
과천시 중앙동, 다문화 이해 높이는 주민자치 교육

과천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실무 역량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2026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과천시 가족센터 장화용 강사를 초빙해 ‘문화가 달라도 과천 이웃이 되고 싶어요’를 주제로 진행됐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뤘다. 특히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윤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주민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윤희 중앙동장은 “앞으로도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과천시, 큐알코드로 민원서류
작성 예시 한눈에 확인해요~

과천시는 민원서류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큐알(QR)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작성 예시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접형 민원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큐알코드를 통해 12종의 민원 서식 작성 예시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큐알코드는 과천시청 누리집과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다.

제공되는 서식은 여권발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 총 12종이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각 서식의 작성 방법과 기재 요령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큐알코드를 통한 작성 예시 안내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2026년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이웃의 식탁

5월 16일

우리 가족 식탁 위 문화 이야기

반미 샌드위치 만들기

5월 23일

다문화 놀이 체험

다름의 이해 & 포트락파티 (키트 사전 제공)

일시

5월 16일, 23일 (토) 13:00~15:20

2일 모두 필수 참여

모집

4월 10일(금) ~ 4월 26일 (금), 홈페이지 접수

* 신청 시 팝업창에 표시되는 번호는 실제 접수 순서와 다르며, 최종 선정 결과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대상

과천시 거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5가족

다문화가족 (7가족), 비다문화가족 (8가족)

* 추후 참여 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시 가족구성원으로 묶어서 신청한 가족단위 우선 선정

부모 1명 + 초등학생 자녀 최대 2명 (총 3명) 참여 가능

장소

과천시가족센터 2층 누리마루 및 다솜마루

문의

02.503.0070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담당자)

과천시 가족센터
GWACHEON FAMILY CENTER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Gwacheon Family Center
과 천 시 가 족 센 터

과천시가족센터는?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가족구성원과 전체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열린 가족 복지 기관입니다.

☎ 02.503.0070

신나는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에 꼭 필요한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

결혼이민자,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등

모집기간

연중 상시 모집

교육기간

2026. 1.~12.

교육장소

과천시가족센터 및 센터 외부, 각 가정(비대면 수업)

교육내용

초/중/고급 한국어

토익 읽기,
듣기, 쓰기

국적, 영주권
취득반

과천
과천민족
한국어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지원

다문화가족자녀 대상 학원비 및 교재 구매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6. 5월, 7월 * 추후 홈페이지 확인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18세이하
(2008~2019년생)
* 교육급여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연간 1인당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신청자명의 농협NH카드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전화 후 센터 방문

*국비지원: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꽃 보다 예쁜
기초학습지원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합니다.

2017, 2018년생

주1회 책읽기, 독후활동, 월 1회 놀이상당
(화, 오후 3:40~5:10)

2019, 2020년생

주2회 한글, 책읽기, 창의 수학
(수,목, 오후 3:40~5:40)

모집대상

관내 취학전후 (2017년생~2020년생)
다문화가족, 외국인가족, 난민가족
자녀 등

모집기간

2026. 2월 정규 모집 이후 연중

교육기간

2026. 3.~12.(화/수/목)
오후 3시 40분~5시 40분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학습지 교재를 활용
한 1:1 학습지도를 지원합니다.

교육기간

2026. 4.~12.

교육대상

4세~11세(2015~2022년생)

교육내용

주1회 15분 내외 가정방문하여
국어, 한글 학습지원
(※일부 비용 학습자 부담)

모집기간

2026. 3월 중

신청방법

전화 후 센터 방문

*재출시료: 추후 홈페이지 확인

신나는 봄, 김포에서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겨요!

김포시가족센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족사랑의 날·1인가구 프로그램 등 참여자 모집



다문화이해교육 참여자 모집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해 ‘226년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다문화 이해 및 소통 교육 △강의 스킬 및 교수법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수료 후에는 지역 내 유치

원, 어린이집, 학교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육 제공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의 현장 적응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의 031-996-5920

가족사랑의 날 참여자 모집

김포시가족센터는 가족 간 소통 증진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MBTI 향기로 알아보는 우리 가족, MBTI 향수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의 성격 유형(MBTI)을 주제로,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이를 향으로 표현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가족들은 각자의 MBTI 특성에 어울리는 향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단순한 만들기 활동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가족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자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 맞춤 향수를 제작하며 의미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4월 29일 저녁 7시에 진행된다. 031-996-5920

1인가구 마음 쉼터 참여자 모집

김포시가족센터는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1인가구 생활밀착형 사업 ‘나를 위한 작은 휴식, 마음 쉼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서 지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힐링과 자기돌봄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총 3회기로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로, 모든 회기

에 참여 가능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회기별로 다양한 힐링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1회기에는 ‘영화로 만나는 인문학’을 통해 감정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2회기에서는 ‘나만의 힐링 식물 만들기’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3회기에는 기본 스트레칭과 심잉볼 명상, 차담이 결합된 ‘소리로 비우는 시간’을 통해 심신 이완과 깊은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 시에는 1인가구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문의 031-996-5920 송하성 기자

2026년 김포시가족센터 1인가구 생활밀착형 사업
나를 위한 작은 휴식, 마음 쉼터 참여자 모집

대상 3회기 모두 참여 가능한 김포시 거주 1인가구
*최종 확정 시 1인가구 증빙 등본 제출 필수

장소 1회기-2회기: 김포시가족센터(구래)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LH한가람마을2단지 관리동 2층
3회기: 하일렌제이 필라레스
*주소: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40번길 92, 1층 101호

내용	회차	일시	내용
	1	4/18(토) 10:00-11:30	영화로 만나는 인문학
	2	4/18(토) 11:50-12:50	나만의 힐링 식물 만들기(에프렐라)
	3	4/25(토) 10:30-11:50	소리로 비우는 시간, 심잉볼 명상 (기본 스트레칭, 생잉볼 명상, 차담)

신청 아래 QR코드 접속 후 약식 신청서 작성→확인 후 연락
→센터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신청

문의 ☎031-996-5920 (1인가구지원사업 담당자)



구글폼 신청QR

2026년 가족사랑의 날
퍼스널 향수 클래스
MBTI 향기로 알아보는 우리 가족

신청 기간 *접수 현황에 따른 조기마감 가능
☑ 4월 10일(금) 9:00 ~ 4월 27일(월) 17:00

모집 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10가정
아버지 참여가정, 한부모 가정 우선 접수 *확정시 개별안내 문자 예정

진행 일정
☑ 4월 29일(수) 19:00~21:00

진행 장소
☑ 김포시가족센터(구래 교육실1)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LH한가람마을2단지, 관리동 2층

신청 방법
☑ 1.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부모 자녀 모두 회원가입
2. 로그인 *마이페이지>가족추가 설정> 가족대표가 신청
3.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김포시가족센터



문의: 031-996-5920

70% người dân cả nước sẽ được nhận “trợ cấp hỗ trợ thiệt hại do giá nhiên liệu cao” từ 100.000 đến 600.000 won 고유가로 인한 피해 지원해요

민생에 플러스⁺
돈돈한 버림목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렇게 지원됩니다!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triển khai gói 3 chương trình nhằm giảm bớt gánh nặng do giá nhiên liệu và giá cả tăng cao, gây khó khăn cho người dân trước ảnh hưởng của chiến tranh Trung Đông. Hãy cùng tìm hiểu chi tiết nhé!

Trợ cấp hỗ trợ thiệt hại do giá nhiên liệu cao dành cho người dân thu nhập thấp

Mức hỗ trợ sẽ tăng dần đối với khu vực địa phương và các khó khăn. Dự kiến sẽ chi trả từ 100.000 đến 600.000 won/người cho 70% dân số có thu nhập thấp hơn.

Cụ thể, theo khu vực cư trú: vùng thủ đô nhận 100.000 won, ngoài vùng thủ đô 150.000 won, 49 khu vực ưu tiên giảm dân số nhận 200.000 won, và 40 khu vực đặc biệt giảm dân số nhận 250.000 won. Dự kiến khoảng 32,56 triệu người sẽ được hưởng lợi.

Ngoài ra, khoảng 360.000 người thuộc hộ gia

đình đơn thân và hộ cận nghèo sẽ được nhận 450.000 won; trong đó, những người ở ngoài vùng thủ đô, khu vực ưu tiên giảm dân số và khu vực đặc biệt sẽ được hỗ trợ thêm 50.000 won/người.

Ngoài ra, trong số 2,85 triệu người thuộc diện trợ cấp cơ bản, người sống tại khu vực thủ đô sẽ nhận 550.000 won, còn những người sống ở ngoài vùng thủ đô, khu vực ưu tiên giảm dân số và khu vực đặc biệt sẽ được hỗ trợ thêm 50.000 won, tổng cộng là 600.000 won.

Người nước ngoài chỉ được nhận hỗ trợ nếu là người nhập cư theo diện kết hôn và người cư trú vĩnh viễn(F-5).

Trong khi đó, khoản hỗ trợ lần này được chi trả dưới dạng tiền tệ địa phương, và phạm vi sử dụng được áp dụng giống như các cửa hàng chấp nhận tiền tệ địa phương, nhằm thúc đẩy hoạt động kinh tế tại địa phương.

Việc chi trả sẽ được thực hiện theo từng giai đoạn (đợt 1 và đợt 2) một cách tuần tự, các nội dung cụ thể như đối tượng nhận hỗ trợ và thời điểm chi trả sẽ được xác định sau khi thảo luận trong tổ công tác liên bộ (TF) và sẽ được thông báo riêng sau đó. Ngoài ra, còn có một chính sách được áp dụng cho toàn bộ người dân. Chính phủ dự kiến sẽ

tạm thời nâng tỷ lệ hoàn tiền của K-Pass lên đến 30% nhằm giảm chi phí nhiên liệu và giao thông cho người dân, đồng thời khuyến khích sử dụng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Ngoài ra, các hộ gia đình thu nhập thấp sử dụng đầu hỏa.LPG có chi phí tăng mạnh sẽ được hỗ trợ thêm 50.000 won.

Đối tượng là những người thuộc diện trợ cấp cơ bản như người cao tuổi, người khuyết tật, trẻ nhỏ, phụ nữ mang thai, gia đình đơn thân, gia đình đồng con... Nếu tính cả mức tăng trung bình 147.000 won đã được công bố trong chính sách mùa đông tháng 12 năm ngoái, tổng số tiền hỗ trợ sẽ vào khoảng 200.000 won.

Ngoài ra, chính phủ cũng quyết định hỗ trợ tạm thời 54,6 tỷ won tiền trợ cấp liên kết giá nhiên liệu cho 54.000 hộ nông nghiệp nhà kính và 29.000 ngư dân đang gặp khó khăn do giá nhiên liệu tăng cao.

Chính phủ mong muốn mở rộng các chính sách hỗ trợ như trợ cấp thiệt hại do giá nhiên liệu cao cho toàn bộ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do họ cũng gặp khó khăn trước ảnh hưởng của chiến tranh Trung Đông.

〈한글 기사 28면〉 파파야스토리

จ่าย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บรรเทา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ราคาน้ำมันแพง” 100,000~600,000 บาท ให้ประชาชน 70% ทั่วประเทศ

รัฐบาลตัดสินใจเดินหน้าโครงการแพ็คเกจ 3 มาตรการเพื่อบรรเทาภาระราคาน้ำมันแพง เพื่อช่วยประชาชนที่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ราคาน้ำมัน และค่าครองชีพที่พุ่งสูงขึ้นจากสงครามในตะวันออกกลาง เรามาดูรายละเอียดกันดีกว่าไหม?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ประชาชนที่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ราคาน้ำมันแพง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กรณีราคาน้ำมันแพงนี้ จะจ่ายเพิ่มมากขึ้นสำหรับผู้ที่อาศัยในพื้นที่ต่างจังหวัดและ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 โดยมีแผนจะจ่ายเงินคนละ 100,000~600,000 บาท ให้กับประชาชนที่มีรายได้อยู่ในกลุ่มล่าง 70%

โดยมีรายละเอียดคือ แบ่งตามพื้นที่อยู่อาศัย ได้แก่ 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 100,000 บาท, พื้นที่นอก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 150,000 บาท, พื้นที่ที่ได้รับสิทธิ พิเศษจากปัญหา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จำนวน 49 แห่ง จะได้รับ 200,000 บาท และพื้นที่พิเศษด้าน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จำนวน 40 แห่ง จะได้รับ 250,000 บาท คาดว่ามีประชาชนราว 32.56 ล้านคนที่จะได้รับ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มาตรการนี้

นอกจากนี้ 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เลี้ยงเดี่ยวและกลุ่ม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ระดับรองประมาณ 360,000 คน จะได้รับ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นละ 450,000 บาท โดยผู้ที่อาศัยอยู่นอก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 รวมถึงพื้นที่ที่ได้รับสิทธิพิเศษจาก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

และเขตพิเศษ จะได้รับเงินเพิ่มอีกคนละ 50,000 บาท

นอกจากนี้ ผู้ที่ได้รับเงินสวัสดิการพื้นฐานจำนวน 2.85 ล้านคน โดยผู้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จะได้รับเงิน 550,000 บาท ส่วนผู้ที่อาศัย อยู่นอกเขตเมืองหลวง รวมถึงพื้นที่ที่ได้รับสิทธิพิเศษจากการลดลง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และเขตพิเศษ จะได้รับเพิ่มอีก 50,000 บาท รวมเป็นเงิน ช่วยเหลือทั้งหมด 600,000 บาท

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จะจ่ายให้เฉพาะผู้ย้ายถิ่นฐานผ่านการสมรสและผู้ที่มิสถานะพำนัถาวรเท่านั้น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ครั้งนี้จะจ่ายในรูปแบบ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 และเพื่อกระตุ้นเศรษฐกิจในพื้นที่ จึงกำหนดให้สามารถใช้จ่ายได้ ในร้านค้าที่เข้าร่วมกับระบบสกุลเงินท้องถิ่นเท่านั้น

การจ่ายเงินจะแบ่งออกเป็น 2 รอบ คือรอบที่ 1 และรอบที่ 2 โดยจะทยอยจ่ายตามลำดับ ส่วน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กี่ยวกับกลุ่มเป้าหมาย และช่วงเวลาการจ่ายเงิน จะ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ผ่านการหารือของคณะทำงานเฉพาะกิจ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ก่อน จากนั้นจะแจ้งให้ทราบ 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มีนโยบายที่ดำเนินการสำหรับ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ด้วย โดยรัฐบาลมีแผนเพิ่มอัตราการเงิน K-pass 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สูงสุดถึง 30% เพื่อลดภาระค่าเชื้อเพลิงและค่าเดินทาง พร้อมทั้งส่งเสริมให้ประชาชนใช้ระบบ

ขนส่งสาธารณะมากขึ้น และช่วยลดค่าใช้จ่าย ด้านการเดินทาง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จะให้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เพิ่มเติม 50,000 บาท แก่ครัวเรือน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ที่ใช้เชื้อเพลิงน้ำมันก๊าดหรือ LPG ซึ่ง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 จากภาระค่าใช้จ่ายที่เพิ่มขึ้นอย่างมาก

กลุ่มเป้าหมายคือผู้ที่ได้รับเงินสวัสดิการพื้นฐาน ได้แก่ ผู้สูงอายุ, ผู้พิการ, เด็กเล็ก, สตรีมีครรภ์, 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เลี้ยงเดี่ยว, 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 ที่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 โดยเมื่อรวมกับเงินเพิ่มเฉลี่ย 147,000 บาท ที่ประกาศไปในมาตรการช่วงฤดูหนาวเมื่อเดือนธันวาคมปีที่แล้ว จะรวมเป็นประมาณ 200,000 บาท

นอกจากนี้ รัฐบาลจะ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งินอุดหนุนที่เชื่อมโยงกับราคาน้ำมัน เป็นการชั่วคราวมูลค่า 54.6 พันล้านบาท แก่เกษตรกรในโรงเรือน ประมาณ 54,000 ราย และชาวประมง 29,000 คน ที่กำลังเผชิญกับ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จากราคาน้ำมันที่สูงขึ้น

รัฐบาลหวังว่าจะขยายการ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เช่น 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เพื่อบรรเทาความเดือดร้อนจากราคาน้ำมัน ให้ครอบคลุมผู้อยู่อาศัย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กคน เนื่องจา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สงครามในตะวันออกกลางเช่นเดียวกัน 〈한글 기사 28면〉 파파야스토리

**GMP**

2026년 교육발전특구 이주배경청소년교육지원

제1차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장 소

키자니아 서울 KidZania

일 시

2026년 5월 17일(일)

참여대상

김포시 관내 이주배경청소년
초등 1학년 ~ 초등 4학년
(보호자 동반 필수)

참여인원

선착순 45명 (보호자 포함)

신청방법

온라인 구글폼 신청



일정안내

진로체험 프로그램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 09:00	집결 / 참가자 확인
09:00~10:30	이동 / 사전교육(안전교육)
10:30~15:00	입장 / 체험활동 / 점심식사
15:00~16:30	이동 / 만족도조사 / 소감나누기
16:30 -	귀가

문 의

이주배경청소년 교육지원
(070-4113-4608)

**GMP**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 김포시 상호문화교류센터

**GMP**

경기도

2026년

고등학교 생활안내
및 입시 설명회

이주배경청소년 자립 진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주배경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한
고등학교 생활 안내 및 입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

대 상	김포시 거주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
일 시	2026.05.31(일) 14:00~16:00
장 소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2층 다목적실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
인 원	선착순 30명
신 청	QR 코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Phone 070-4113-4608/4610



**GMP**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동 화 로
요 리 여 행

떠나는

1. 프로그램 소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동화 요리 활동

2. 일시

* 4/14(화), 16(목) 16시~17시 / 만1~2세
* 4/21(화), 23(목) 16시~17시 / 만3~5세

3. 대상

김포시 거주하는
만1세~만5세 자녀 및 부모 10가정

4. 장소

공동육아나눔터 대곶 (울생로 82-23)

5. 신청방법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신청

6. 문의

김포시가족센터 031-996-5920
(신청 후 담당자가 선정 확정 연락드립니다)

나는 자라요
너는... 아니니?
오늘 기분은
노란색이에요!
발한그루
뚝딱!

공동육아나눔터 4월 부모자녀상시프로그램

**GMP** 김포시가족센터

육아나눔터통진 3-4월 부모자녀상시프로그램

영아대상 부모자녀프로그램
뮤직하히 오감 음악놀이
봄바람 타고 놀아요

진행기간 | 2026. 3/24-4/14 (매주 화요일, 총 4회)

모집대상 | 1회차 15:30-16:10 / 8-15개월 부모 및 자녀 8가정
2회차 16:30-17:10 / 16-24개월 부모 및 자녀 8가정

진행장소 | 육아나눔터 통진 (김포대로 2250번길 24-11)

참가비용 | 무료

신청방법 | 2026.3.12~3.24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대상별 신청 (8-15개월/16-24개월)

안내사항 | *신청 후 담당자가 선정 확정 연락(신규가정 우선)
*아빠 참여시 우선 참여 혜택
*사전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다음 프로그램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문 의 | 031.997.5921



김포시가족센터

이웃과 함께 나누는 돌봄 공간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나눔터 안내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돌봄 공간이다.

현재 대곶에는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통진과 구래에는 육아나눔터가 각각 조성되어 있다. 영·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동반 이용할 수 있으며, 권역별로 분산 운영되어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나눔터(구래, 통진)에서는 ▲공간 이용 ▲부모-자녀 상시 프로그램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자녀 상시 프로그램은 놀이와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가족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춘 활동을 통해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및 협동심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월별 주제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감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은 이웃 가족 간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육아와 체험, 학습 등을 함께하며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포시가족센터는 4월에도 공간 이용과 함께 공동육아나눔터(대곶)와 경기육아나눔터(통진,구래)에서 상시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래와의 관계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간 이용과 부모·자녀 4월 상시프로그램,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가족사업 1팀(☎ 031-996-5920)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박차!

김포시, 4~11월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



김포시가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 원어민 프로그램 운영을 지난 10일 시작했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원어민 프로그램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2회 원어민 강사를 파견하여 실용회화, 영어미술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으며,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접목한 소통형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술내점과 모담초중점의 수업을 시작

으로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노래를 배우고, 단어를 접하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며 스티커북을 활용하는 등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학습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 공교육의 글로벌 역량 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사교육 격차를 해소와 글로벌 소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아이들이 원어민과 직접 소통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교육발전특구 취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주말 가족숲 프로그램 운영

김포시 유아숲체험원, 가족 단위 체험



김포시는 4월 18일부터 ‘유아숲체험원 주말 가족숲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의 자연 친화적 성장과 가족 단위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평일 정기형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자연 속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프로그램은

생태놀이, 숲길탐방,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유아가 자연과 교감하며 오감을 활용해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참여 대상은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 유아를 동반한 가족이며, 참가 비용은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50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연과 산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포시 블로그에서 자세한 참가 신청 방법을 알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유기동물 입양문화 조성한다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 확대 예고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통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나선다.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진료범위와 진료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김포시는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에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 항목 신설과 취약계층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

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진료비 감면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견의 입양을 활성화하는 한편, 입양 이후에도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 진료비 감면 취약계층 대상 확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진료비 감면 및 진료범위 확대 ▲반려문화 조성 및 발전기여자 포상 근거 신설 ▲ 홍보활동 지원 근거 신설 등이다.

김포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취약계층과 유기견 입양시민에 대한 진료범위가 확대돼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역량 강화로 더 나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해요!

김포시가족센터, 2026년 아이돌보미 1차 집담회 6회 진행해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소속 아이돌보미 17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6회에 걸쳐 2026년 아이돌보미 1차 집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2026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비롯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개정된 노무 매뉴얼을 공유했다. 아울러 돌봄활동 사례 및 모니터링 개선사항을 함께 나누며, 아동에게 보다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를 도

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집담회에 참석한 박 모 아이돌보미는 “올해 신설된 유아돌봄 수당과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등 추가 지원 내용에 대해 대면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이번 집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로서 소속감과 책임 의식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원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미정 센터장은 “김포시 아이돌보미의 돌봄 활동은 대상 가정의 양육 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에 큰 도

움이 되고 있다”며, “아이돌보미의 활동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와 소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각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996-59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여성1인가구 위한

‘여성안심패키지’

김포시가 여성1인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은 여성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및 위기 대응에 필요한 방법·호신 물품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1인가구, 한부모 모자가정,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구이며, 신청자 중 안전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안심패키지 물품은 스마트 안전 기능을 강화한 A세트 4종(스마트 문열림감지센서, 스마트홈 카메라, 호신용 스프레이, 송장지우개)과 긴급상황 대응 및 출입문 보안 강화에 중점을 둔 B세트 5종(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등)이다 031-980-5582 이지은 기자

글로벌 관광명소 애기봉, 외국인 발길 이어진다

김포시, 안보 관광 수요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 맞춤 서비스 등 강화해



외국인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글로벌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미군 장병들의 가족들이 방문해 높아진 위상이 입증됐다. 김포시는 올해 들어 외국인 방문객이 87%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안보 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애기봉 전망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4월 10

일에는 미 육군협회 한국지부 주관으로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미2사단 사령부 소속 장병과 가족들이 애기봉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안보 상황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애기봉은 북한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보 관광지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일본어 오디오 가이드를 추가 제작하고, 영어 해설사를 채용하는 등 외국인 수용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반도의 역사와 분단 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에 큰 관심

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안보 교육과 문화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외국인 방문객 증가 추세를 반영해 다국어 안내 체계 구축과 전문 해설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애기봉을 국제적인 안보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애기봉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국제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초등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확인해요

김포시는 13일, 2026학년 초·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 및 접종이 지연된 학생에 대해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단체 생활을 시작하는 입학생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4~6세 대상 추가접종 백신 4종(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폴리오(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 백신(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을 확인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완료된 접종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